# 선군, 승리의 기치

# 선군, 승리의 기치

조선 · 평양 · 조선화보사
주체92(2003)년

혁명의 성산－백두산

조선혁명은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에 의하여 승리하여왔으며 선군의 길에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이 영예롭게 수호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총대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였으며 적들의 도전과 위협에 맞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혁명의 근본은 총대에 있다, 강력한 군대만 있으면 조국의 해방도 이룩할수 있고 당도 국가도 건설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중시사상의 핵이였고 신념이였다.

그이께서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하시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하여 마침내 주체21(1932)년 4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령활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여기에 장차 해방된 조국에 서게 될 새 정권의 원형인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다.

항일의 길, 무장투쟁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오를 일떠세운것은 총대를 놓으면 조선은 영영 솟아날수 없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자각과 철석의 의지였다.

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확대강화되고 반일무장대오와 국내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가 서게 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중추적핵심력량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군대에 의거하여 힘있게 추진되고 조국해방의 위업은 드디여 성취되였다.

해방후 새 사회건설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직접 맞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함없이 군대를 중시하시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는데 힘을 넣으시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데 이어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공화국의 창건으로 우리 나라는 독립국가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 자주적인 인민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를 강점하고 세계를 제패할 꿈을 꾸어온 미제는 조선에서 끝내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고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월성으로 격파하도록 하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세계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전후에도 미제는 조선과 세계도처에서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정세를 긴장시켰다. 그이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혁명적으로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전군을 간부화, 현대화하고 전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선군의 길에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군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1970년대에 벌써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수령의 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심으로써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군대로 키워오시였다. 이 나날들에 미제의 각종 도발책동들은 여지없이 분쇄되였으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은 만방에 떨쳐졌다.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심해지고있던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혁명에서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였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로 개척한 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해나갈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일찌기 정권은 총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혁명의 원리를 제시하시고 군사중시로 공화국의 위력을 굳건히 다져오신 그이께서는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철석의 신조를 간직하시고 주체84(1995)년 새해 첫날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그날로부터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선군령도의 길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기풍이 전당과 온 사회에 차고넘치였으며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당의 정치는 선군정치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전략로선은 선군혁명로선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선군정치, 그것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우리 시대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높이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관리체계를 세우시여 국가의 정치체계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시였으며 공화국정권을 당의 선군정치를 실현해나가는 강력한 국가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선군정치가 구현되는 나날에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도 강하고 전법도 우월하며 무장장비도 위력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혁명의 주체는 반석같이 강화되였다.

선군의 기치밑에 인민군군인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맡아나서고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져 경제문화건설에서도 일대 전변이 이룩됨으로써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새 국면이 열리였다.

조선의 분렬 55년만에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고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대외사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선군정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고 새 세기 주체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해주는 만능의 보검, 승리의 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치닫고있는 새 세기에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주고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끝없는 고무와 신심을 주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지략을 지니신 천출위인을 령도자로 모시고 선군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의 혁혁한 로정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륭성번영할것이다.

# 총대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속에서 외세에 기대를 걸고 청원도 해보고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도 해보았지만 얻은것이란 총칼의 세례, 참혹한 죽음뿐이였다.

일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는 비결은 오직 총대를 틀어잡는데 있었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바로 이것이 주체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 군사중시사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무장대오를 결성하시고 안도의 밀림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으로 첫 무장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령활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유격대의 전투력을 높여나가시는 한편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들을 세우시였다.

인민들은 여기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성의껏 원호하였으며 무장을 들고 유격대와 함께 싸우기도 하였다.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유격대의 투쟁행로는 간고하고 험난하였으며 그 과정에 무장대오의 운명이 벼랑끝에 놓인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결코 총대를 놓을수 없었다.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유격대의 대오는 장성하여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확대발전되였다. 그때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은 보다 넓은 판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에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부대들에도 당조직들을 내오시여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내의 각급 당조직들을 거기에 망라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은 조선인민혁명군을 통하여 조직령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외도처에서 령활무쌍한 군사작전으로 적들을 타격섬멸하는 한편 로동자와 농민, 주민들속에 들어가 다양한 정치문화활동으로 그들을 각성시키고 반일투쟁에로 적극 고무하였다. 특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은 국내깊이까지 파견되여 공장과 기업소, 농어촌들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비롯하여 혁명조직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반일대중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하여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동적역할에 의하여 일제침략자들은 패망하고 조선의 해방은 마침내 실현되였다.

총대는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내리우지 말아야 한다는 혁명적진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였다.

포평혁명사적탑

## 뜻깊은 나루터

포평나루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의 맹세가 새겨진 뜻깊은 곳이다.

주체14(1925)년 1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시던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연히 고향 만경대를 떠나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을 굳은 결심을 다지시며 천리길을 걸어 국경인 포평땅에 이르시여 조국산천을 다시금 돌아보시며 비장한 결심을 다지시였다.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다지신 이날의 맹세를 지켜 20성상 조국해방을 위한 피어린 길을 헤쳐오시였다.

포평나루터

《ㅌ.ㄷ》를 결성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15(19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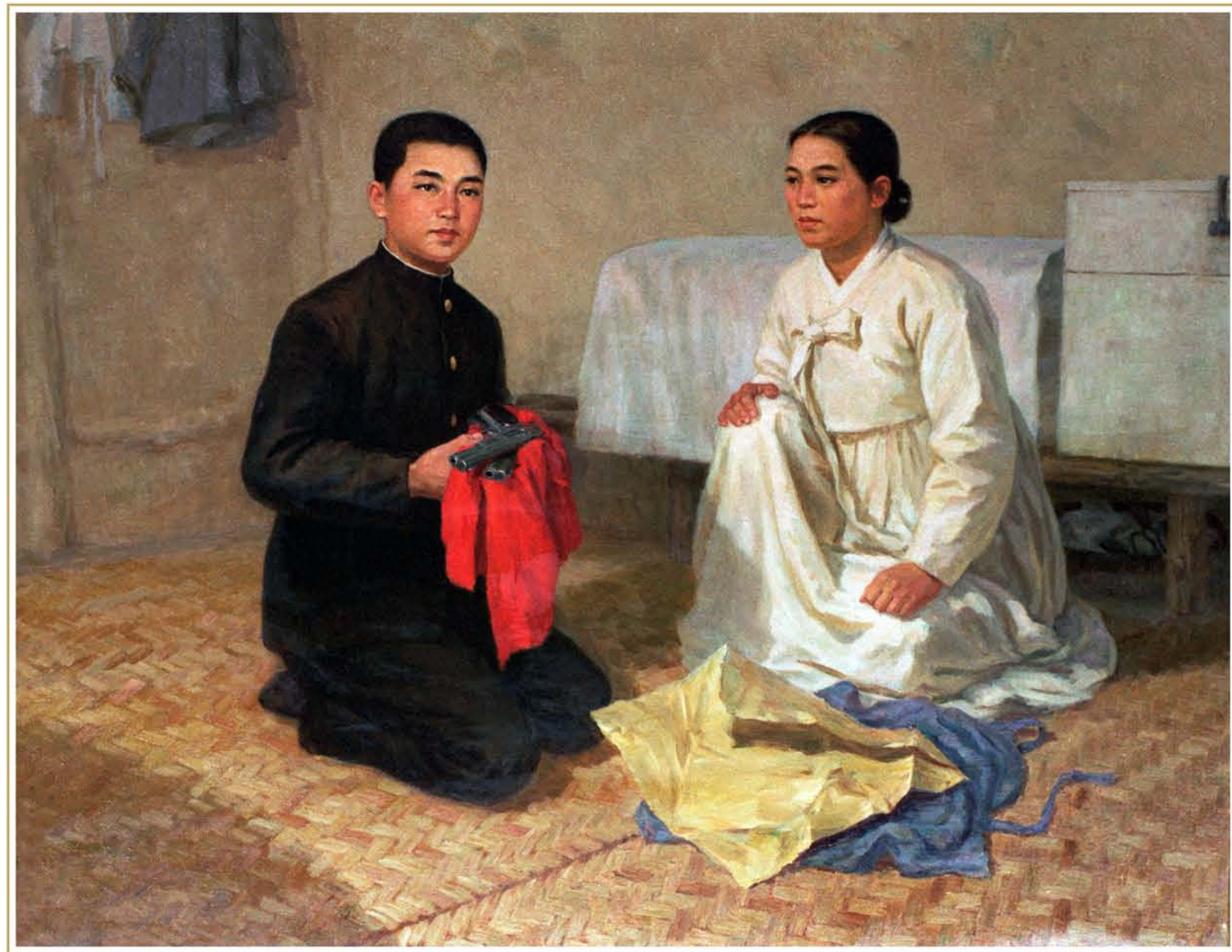
이 집에서 《ㅌ.ㄷ》 성원들은 비밀독서모임을 자주 가지였다.

##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키우신 새세대 청년혁명가들로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ㅌ.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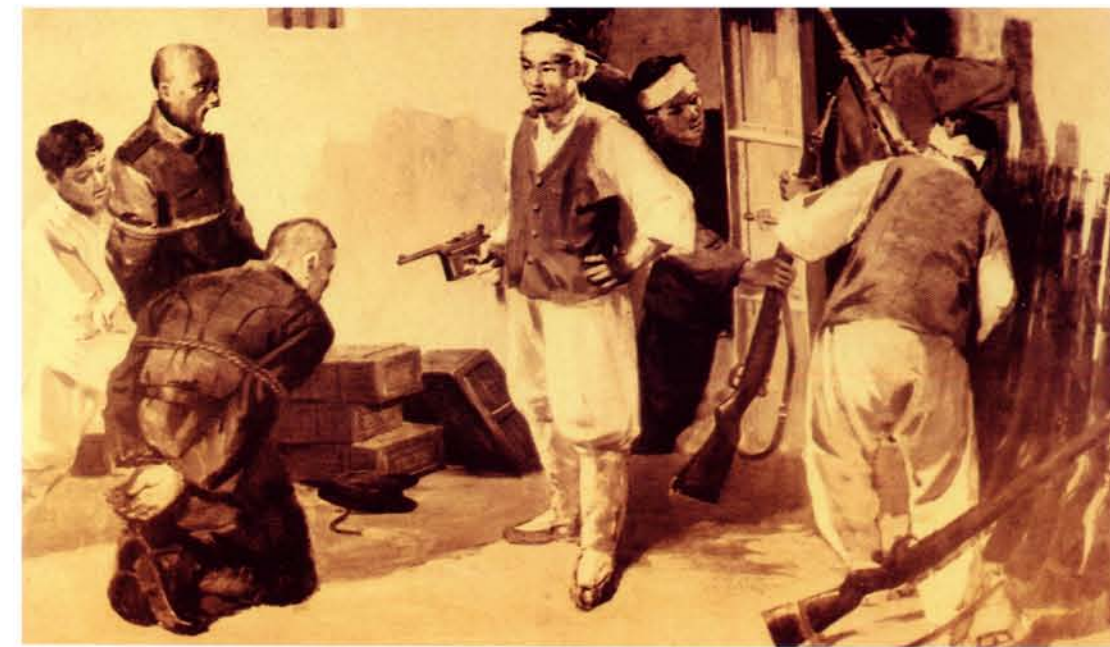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투쟁의 뜻을 품고 다니시던 화성의숙터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쓰시던 권총을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로부터 넘겨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두자루의 권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지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선생님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5일 자신께서 쓰시던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였다.

아버님의 필생의 소원과 무장투쟁의 호소가 담긴 권총을 혁명가의 가장 값높은 유산으로 받아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혁명무력을 창건하시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였다.

무장을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혁명적무장력의 탄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을 목적으로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군대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인 무장투쟁을 직접 담당하고 이끌어나갈 주도적력량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려던 조선인민의 오랜 력사적숙망이 실현되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소사하 무주룬진경
・소왕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대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 비밀아지트로 쓰시던 집

## 유격근거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주체21(1932)년 5월부터 불과 몇달사이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안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으며 토지개혁, 8시간로동제,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등 민주주의적개혁과 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유격근거지는 조선혁명의 책원지,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사전략기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 대원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왼쪽으로부터 세번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불패의 대오로 강화된 조선인민혁명군

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25(1936). 2.

## 남호두회의

주체25(1936)년 2월말—3월초 녕안현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을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으로 밝히시였다.

그리고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로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였다.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주체25(1936)년 5월 우리 나라에서 첫 상설적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가 진행된 곳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주체25(1936). 5—주체34(1945). 8.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백두산근거지

1930년대후반기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였다.

백두산원시림의 소백수골안에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지고 이를 중심으로 사자봉, 곰산, 선오산, 곰의골, 지양개 등 국내와 서간도의 여러곳에 각이한 사명을 띤 수많은 위성밀영들이 꾸려져 백두산일대는 강력한 밀영망으로 뒤덮이였다.

백두산근거지는 이 밀영망과 그 주변지역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지하혁명조직망으로 구성된 반유격구형태의 근거지로서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성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근거지에 튼튼히 의거하시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백두산밀영 사령부귀틀집

진투가 진행될 당시 보천보

## 보천보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주체26(1937)년 6월 일제의 군사적요충지인 보천보를 공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신 총성을 신호로 하여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폭압기구, 통치기관들을 일격에 습격소탕하고 보천보일대를 해방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포고》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거리에 내붙이고 격문과 삐라를 살포하면서 힘있는 정치선동을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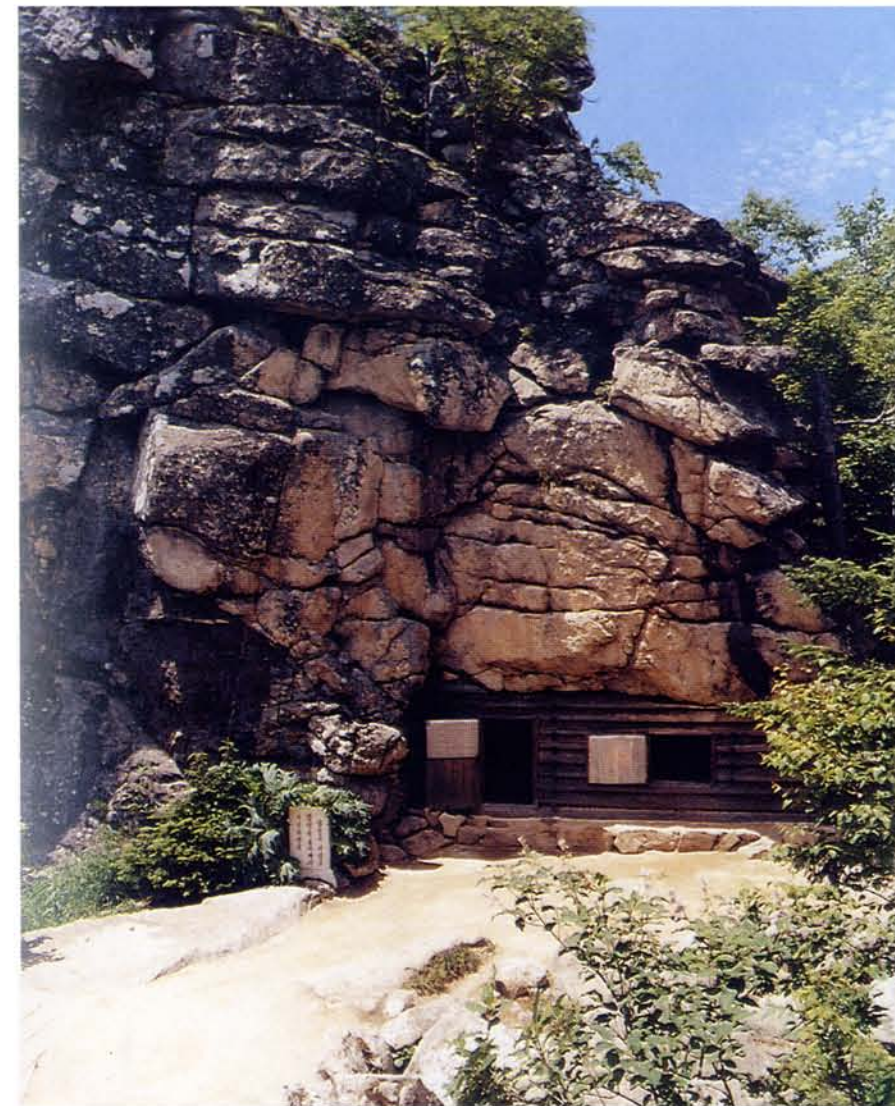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그들의 가슴에 투쟁의 불씨,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시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흔들어놓았다.

보천보전투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습격한 일제의 경찰관주재소

조선인민혁명군에 얻어맞은 우편소(우)와 불타버린 일제의 통치기관(아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6(1937)년 9월과 주체27(1938)년 8월에 백역산밀영에 계시면서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동해안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강화할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부전과 풍산일대에 련락을 하기 위해 옥련산에서 숙영하신 곳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평안남도 양덕군 남대봉밀영(우)과 함경남도 영광군 자동리 동오골밀영(아래)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고난의 행군

주체27(1938)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노린 일제의 대규모적 《토벌》공세와 국내혁명조직들에 대한 탄압,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벌린 열하원정의 후과로 조선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로의 력사적인 행군을 하시였다.

보통날에는 5~6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적들의 집요한 추격과 혹심한 추위, 굶주림속에서 100여일이나 걸려서야 가닿을수 있었는데 이 행군은 조선의 항일혁명력사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행군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혁명적동지애, 령활무쌍한 유격전법과 전술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창조된 불멸의 업적과 혁명정신은 조선혁명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 청봉숙영지

울창한 삼송림이 덮여있어 사철 푸르싱싱한 청봉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조국에 진출하여 숙영의 첫밤을 보낸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봉에서 대원들을 휴식시키면서 적정과 지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고 헌시비가 세워져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자리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밥을 지으신 자리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정연한 생활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원실자리, 우등불자리, 샘물터, 구호나무 등이 원상대로 보존되여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청봉에서 피우신 우등불자리
주체28(1939). 5.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청봉에서 숙영할 때 쓴 구호문헌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르시는 **《사향가》**를 들으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 《사 향 가》

《사향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노래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손에 총을 잡고 나선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주의, 꿈결에도 잊지 못할 조국산천과 부모형제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조국해방의 불타는 맹세가 담겨져있다.

가사에 표현된 고향산천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추억의 감정은 일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적개심,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리라는 불타는 지향과 밀접히 결부되여 절절하게 안겨온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숭고한 조국애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며 높이 울린 《사향가》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우고있다.

## 삼지연

삼지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8(1939)년 5월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시던 길에 잠시 휴식하시면서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애의 뜨거운 불씨를 안겨주신 뜻깊은 곳이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기 삼지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체68(1979)년 5월 삼지연대기념비가 건립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종심 400m, 너비 250m의 넓은 교양마당중심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을 배경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부주제조각군상들인 《조국》편, 《숙영》편, 봉화탑, 《흠모》편, 《진군》편, 《조국의 물》편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삼지연혁명전적지

삼지연대기념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신사동의 사령부자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운데)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부각상

## 무산지구전투

주체28(1939)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청봉, 베개봉, 삼지연을 거쳐 일제의 가장 악질적인 수비무력이 집결되여있는 무산지구로 신속히 진출하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으며 5월 23일 대홍단벌에서 추격해오는 적들을 유인매복전술로 소멸함으로써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를 기념하여 대홍단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위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주체29(1940)년 여름 대사하치기에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다.

뜻밖에 대여섯명의 적들이 갈밭속에 몸을 감추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투지휘를 하고계시는 지휘처가까이에 기여들었다.

전투의 첫시작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지켜 주변의 정황을 예리하게 살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번개같이 달려가 온몸으로 그이를 막아나서시며 적들에게 총탄을 안기시였다.

맨 앞놈이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지는 순간 또 한방의 총소리와 함께 다음놈이 쓰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어깨너머로 쏘신것이였다.

두분의 명사격에 의해 사령부를 노리고 기여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소멸되였다.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신 김정숙동지의 위훈은 항일의 전장마다에서 발휘하신 충실성과 더불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으로 길이 빛나고있다.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 작전을 조직령도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소할바령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돈화현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총화되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혁명의 중추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고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며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밝히시였다.

또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로서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곳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 《백두광명성》

주체31(1942)년 2월 16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 소백수골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조선민족의 대통운을 알리는 최대의 경사였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은 그이께서 장차 조선의 앞길을 비쳐주는 빛나는 별이 되시라고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숙녀사

주체30(1941). 3. 1.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두번째줄 가운데 앉아계시는분)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소부대전투훈련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만수대에 건립된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모습을 형상한 조각군상

# 정규무력과 새 사회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굳건한 무력적기반우에서 솟아났으며 그의 자주권과 존엄도 혁명적무장력에 의하여 영예롭게 수호되였다.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전 조선반도를 강점하고 세계를 제패할 야망에 사로잡혀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군력강화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시고 나라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리는데 힘을 기울이시였다.

해방직후에 그이께서 평양시의 평천리(당시)에 있었던 병기공장을 찾으신것도 나라의 자위적국방력구상과 잇닿아있었다.

강력한 혁명무력이 없이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립하시고 여기서 정규군의 군사정치간부들과 군사지휘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도록 하시였으며 여러 지방에 몸소 나가시여 군종, 병종부대들을 새로 조직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2월에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였다. 자주독립국가의 무력적담보가 마련된 기초우에서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높여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민족국방공업을 창설하시고 자체의 힘으로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생산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민간군사조직들도 내오고 전민이 국방사업과 원군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였다.

1950년 6월 미제와 그 주구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군 군인들은 전선과 고지마다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였으며 후방인민들은 적기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전선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식량을 중단없이 보내주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군장병들속에 계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식의 전략과 전법들을 제시하시여 그를 전투마다에서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동원하여 막대한 무력으로 대규모적인 각종 공세를 벌려놓았지만 전선도처에서 참패를 면할수 없었다.

미제는 3년간의 조선전쟁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사기술기재를 잃고 주체42(1953)년 7월 드디여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세계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해나가시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였다.

## 민족의 환호성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리였다.

이른새벽부터 모여온 10여만의 군중들로 초만원을 이룬 대회장은 감격과 흥분으로 끓어번졌고 민족의 영웅을 우러러 터친 만세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의 열광적환호에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며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온 나라를 새 조국건설의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 10.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 12.



로동법령실시를 환영하는 군중시위

토지개혁법령을 환영하는 농민들

## 민주개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민주개혁이 실시되였다.

주체35(1946)년 3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고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를 청산하였으며 그해 8월에는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사법, 검찰기관들을 민주화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하였다.

첫 기관단총의 시험사격이 진행된 평천혁명사적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첫 기관단총의 시험사격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첫 기관단총

자립적국방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체36(1947)년 6월 우리 나라에서는 첫 병기공장이 일떠섰다.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다음해에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만들어냈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주체38(1949)년부터는 기관단총계렬생산에 들어가게 되였다.

처음으로 생산된 기관단총을 간부들에게 수여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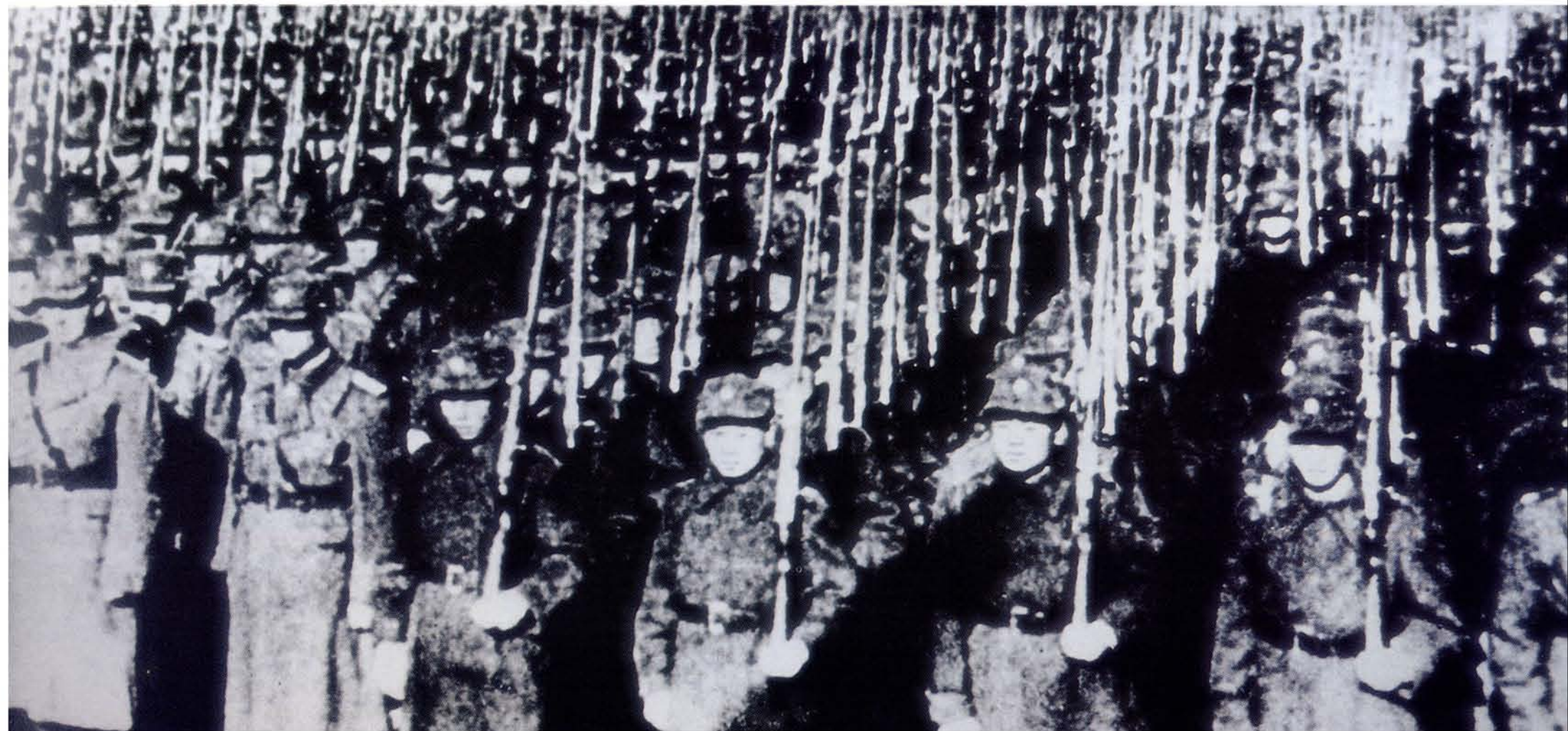
조선인민군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 2.

## 정규무력건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령도에 의해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였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의 특성과 그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밝히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내각수상으로 추대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 9.



## 새 조선의 탄생

주체37(1948)년 8월 전 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남북총선거가 실시되였다.

북조선에서는 선거자총수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21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미군강점하의 남조선에서는 선거자총수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남북총선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고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9월 9일 조선인민의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직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이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정권건설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북남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에 있는 백두산과 오각별, 그 빛발은 공화국정권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과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전망을,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은 우리나라 경제의 위력과 발전전망을 상징하고있으며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여 국장을 타원형으로 한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영원성과 조국의 부강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주권을 위해 몸바쳐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우리 혁명력량을 상징한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의 슬기와 용감성, 결백성을 상징한 흰색띠, 조선인민의 혁명적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한 푸른색띠로 이루어져있으며 항일의 혁명전통과 미래의 승리를 상징한 붉은 오각별이 흰 동그라미안에 그려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밑에 혁명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에 나오신 김정숙동지

## 삼일포의 메아리

주체36(1947)년 9월, 명승지 금강산을 인민의 휴양지로 훌륭히 꾸릴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숙동지께서 이곳에 오시였을 때였다.

삼일포의 장군대에 이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넘겨주시는 권총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그 사격솜씨로 300m거리의 류동목표를 별로 겨냥도 없이 단방에 명중하시였다.

신묘한 사격술에 감탄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아직 우리 혁명이 갈길이 먼데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혁명전사의 사격솜씨가 변해서야 되겠는가, 미제를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총을 잘 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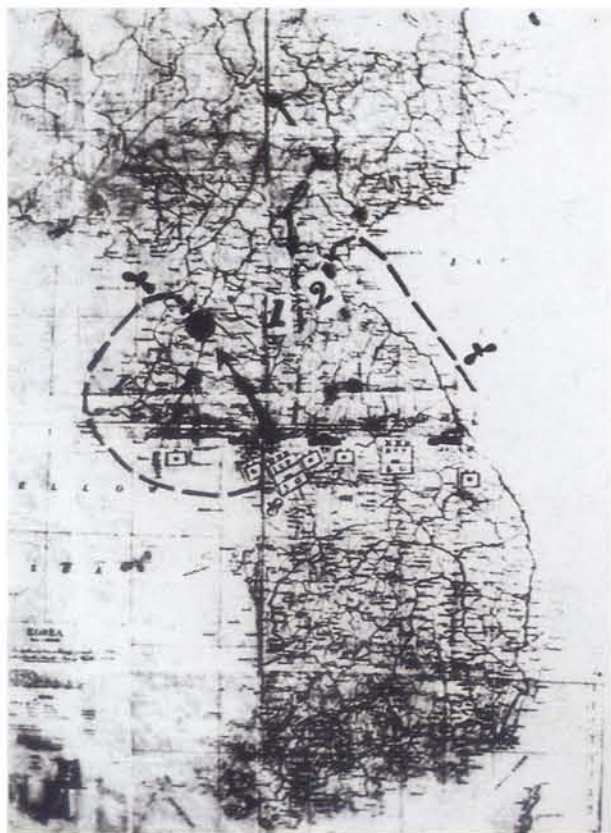
김정숙동지께서 울리신 삼일포의 총성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충성의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삼일포

## 조국해방전쟁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사촉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조국과 인민앞에 닥쳐온 준엄한 시련을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막아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즉시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적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고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받아안은 전체 인민과 군대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 38°선참호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제의 전쟁방화자 덜레스
·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작전계획도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사촉하여 38°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 6. 26.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 높이 받들고 전선으로 탄원하는 황해제철소 로동자들

·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물리치고 반공격에로 넘어간 조선인민군 용사들

서울해방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해방된 서울에 람홍색
공화국기 휘날린다.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을 환영하는 서울시민들

## 서울해방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전 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간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전쟁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6월 28일 새벽 서울해방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땅크련합부대가 돌격로를 열어놓은데 뒤이어 보병련합부대들이 적을 정면과 익측, 배후로부터 타격하면서 시가에 육박하여 이날 오전 적의 아성인 서울을 완전히 해방하였으며 괴뢰군의 기본집단을 소멸하였다.

대전시에 들어가는 조선인민군 전투원들

《대전을 떠나면서—다음은 대구, 부산!》

## 대전해방작전

서울에서 패주한 적들은 군사전략상요충지인 대전에 《림시수도》를 정하고 어떻게 하나 이 일대를 유지하여 전쟁국면을 역전시켜보려고 하였다.

금강남쪽대안에 이른바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하는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렸으며 대전방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적들의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전지역에서 미제침략군의 기본력량을 포위섬멸할데 대한 대담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서울에 있는 전선사령부에 나오시여 작전을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무쌍한 지휘밑에 금강방어진을 신속히 돌파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각 군종, 병종의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강력한 정면공격과 익측 및 배후타격, 민첩한 기동과 우회, 매복과 습격 등 다양한 전투형식과 방법으로 이른바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군 제24보병사단을 완전히 포위섬멸하고 대전을 해방하였다.

대전해방작전은 주체전법과 탁월한 령군술로 적의 대집단을 일격에 소멸한 현대포위전의 산모범으로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시위하고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린 전쟁사에 특기할 작전이였다.

대전해방전투전경화(부분)

월미도방어전투

## 월 미 도

1950년 9월 《유엔군》의 간판밑에 추종국가군대까지 긁어모아 수십만의 대병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한 미제는 락동강계선에서 《총공세》를 감행하는 한편 1 000여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과 5만여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인천상륙작전을 벌렸다.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를 지키고있던 인민군용사들은 단 4문의 포를 가진 1개 중대의 력량으로 영웅적결사전을 벌려 여러척의 구축함과 함선들을 격파하고 적의 인천상륙작전을 3일간이나 지연시키는 전쟁사상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곡산일대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있는 적후투쟁부대 전투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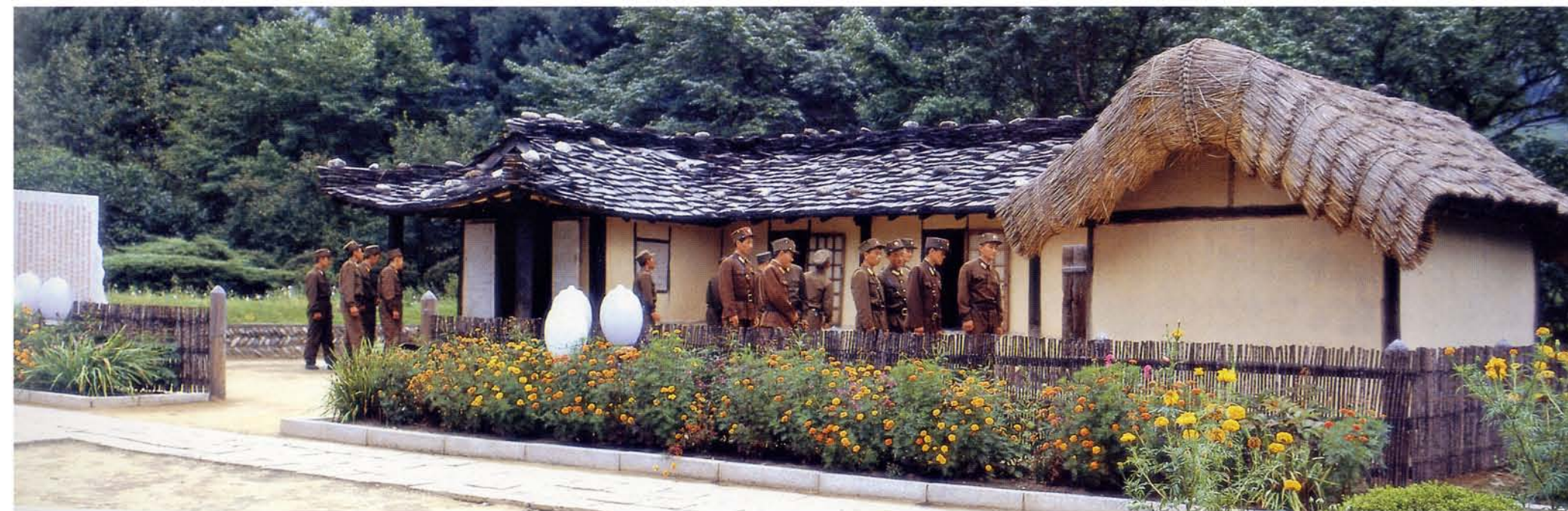


전투계획을 토의하는 인민군대와 인민유격대 지휘관들

원쑤들을 소멸하기 위해 험산준령을 넘는 인민유격대원들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9(1950)년 11월—12월에 계시던 고산진혁명사적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9(1950)년 12월에 계시던 향하혁명사적지

1211고지를 피로써 지켜싸우고있는 인민군용사들

화선공개당총회에서 1211고지를 사수할것을 결의다지는 전투원들

## 1211고지

1211고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지였다.

1211고지방위자들은 하루에도 3만～4만발의 포탄과 폭탄이 쏟아져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적의 수십차례의 파도식공격으로 숨돌릴 사이도 없는 가렬처절한 전투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피끓는 심장으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막고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진속에 뛰여들었는가 하면 자기 혈맥으로 끊어진 통신선을 이었고 박격포신을 거의 수직으로 세워 45m거리까지 접근한 원쑤들에게 명중탄을 안기며 한치한치의 조국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1211고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여 《상심령》이라고 하였으며 주변골짜기에 한번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하여 《함정골》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0(1951)년 9월 23일 몸소 최전연까지 나오시여 1211고지전투를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신 곳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1(1952)년 10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주지 말데 대한 교시를 주신 밤골혁명사적지

점령한 351고지에서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있는 전투원들

## 화선악기

가렬처절한 전투장에서 인민군용사들은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며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

주체40(1951)년 10월 전선동부의 박달령방위자들속에서 처음 만들어진 악기는 그후 전 전선에 걸쳐 급속히 전파되였는데 군인들은 이렇게 만든 악기를 《화선악기》라고 불렀다.

불타버린 고지에서 악기재료도 제작도구도 경험도 없었으나 군인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 적들의 폭탄파편으로 손칼과 대패날, 끌을 만들고 불탄 나무와 전선줄을 가공하여 훌륭한 악기들을 만들어냈다.

화선악기에는 가야금, 아쟁, 단소, 해금 등 민족악기들과 바이올린, 첼로, 기타, 만돌린 등이 있었다.

주체41(195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각 련합부대들의 예술공연대회와 주체42(1953)년 5월 제6차 군무자종합예술경연에서는 전선부대들에서 제작한 화선악기들이 대인기를 끌었다.

전투원들의 생활에는 시도 노래도 춤도 오락경기도 있었다.

자기들이 만든 화선악기를 연주하는 전투원들

조선인민군 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관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신 룡포혁명사적지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신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찾은 전쟁로병들과 청년군인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부를 계속하고있는 원아들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고있는 보건일군들

## 인민적인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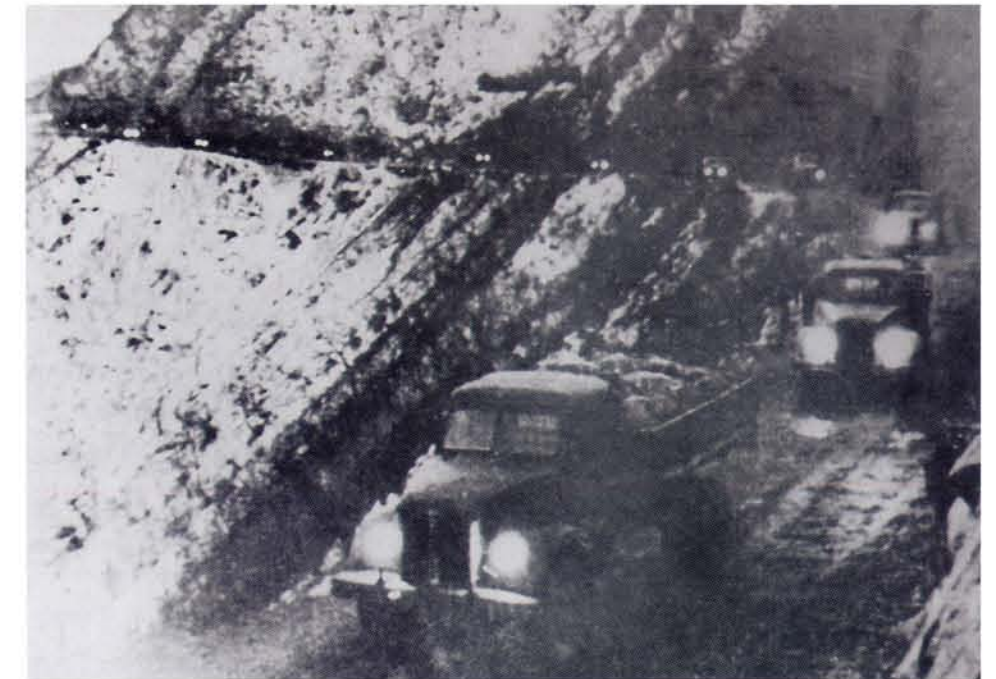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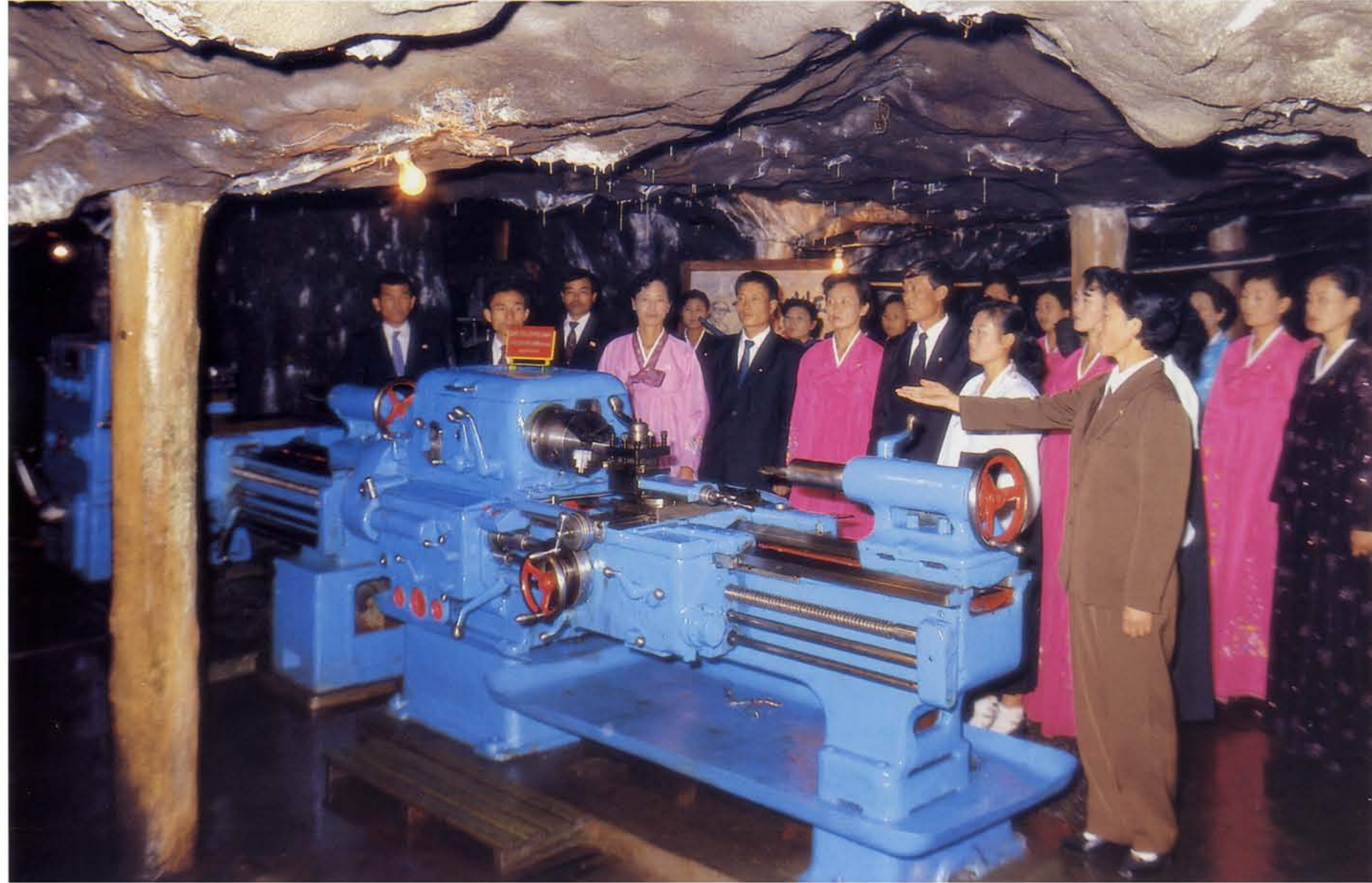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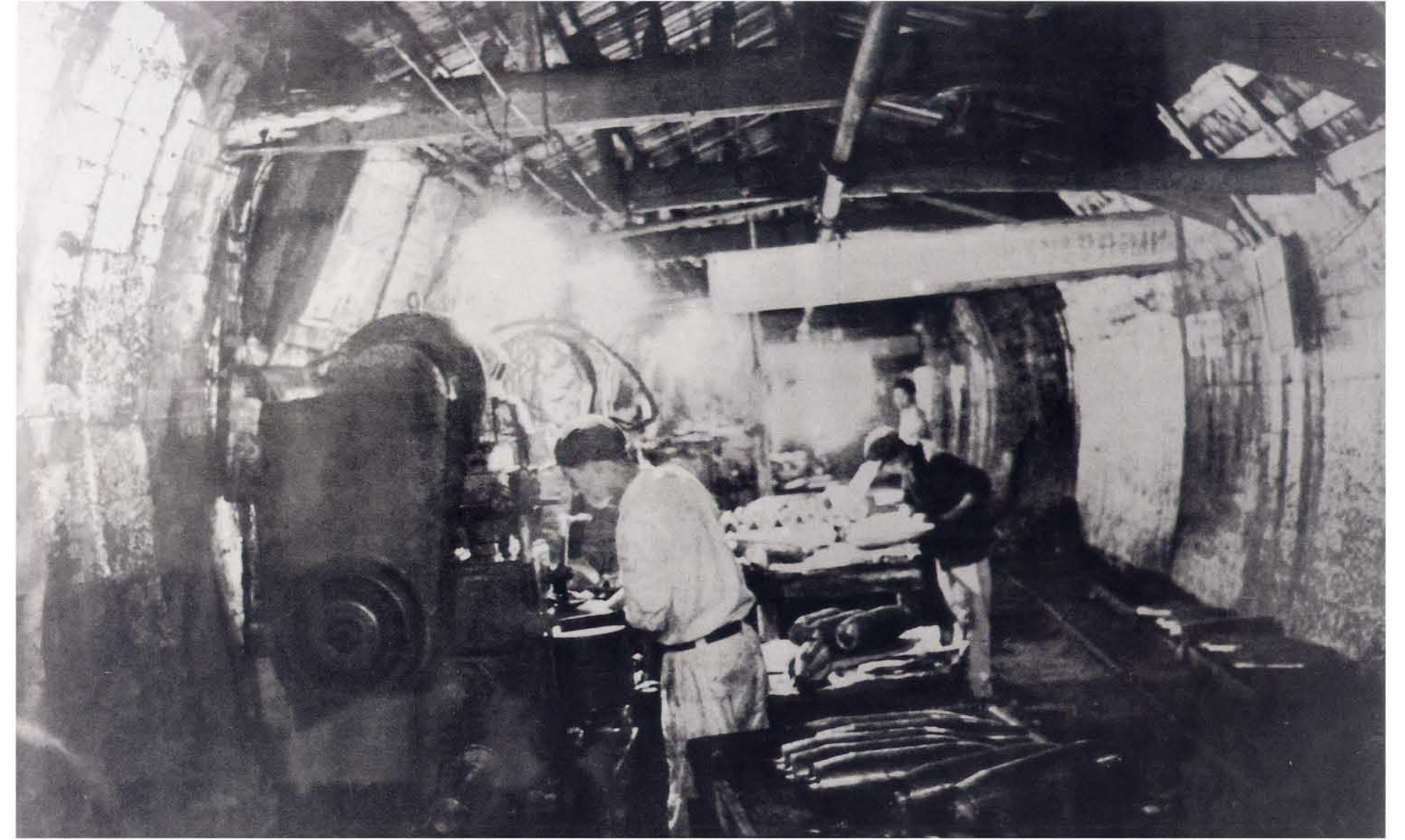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시환경속에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후방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41(1952)년 2월과 6월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 《현 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는 전시조건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되였다.

전시의 어려운 조건이지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식량 및 생활필수품공급기준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었으며 주체41(1952)년 11월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다.

또한 애국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이 광범히 조직되고 유자녀학원과 초등학원, 애육원, 영예군인학교들이 세워졌으며 전재민구호위원회가 조직되였다.



· 원쑤격멸의 기세로 포탄생산을 다그치고있는 로동자들
· 전선에 보낼 군복을 만들고있는 피복공장 로동자들
· 한알의 쌀이라도 전선에 더 보내려고 떨쳐나선 농민들

캄캄한 밤 철령을 넘어 전선으로 달리는 자동차대렬

전시군수생산을 보장한 군자혁명사적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시포탄생산을 다그치고있는 로동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전승혁명사적지의 집무실(지하)



## 포화속에 작성된 건설계획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작성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주체40(1951). 5.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는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고있었다.

무비의 담력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승리할 앞날을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0(1951)년 1월 재더미로 된 평양시를 웅장화려한 현대적도시로 새롭게 일떠세울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41(1952)년 5월에는 평양시복구건설에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각 도소재지들과 농촌마을의 복구건설계획 및 설계작성사업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들과 농촌을 새롭게 일떠세울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작성되게 되였다.

주체41(1952)년 여름 뽈스까의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세계건축가들의 모임에는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전시되여 싸우는 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담력을 온 세계에 시위하였다.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하여주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주체42(195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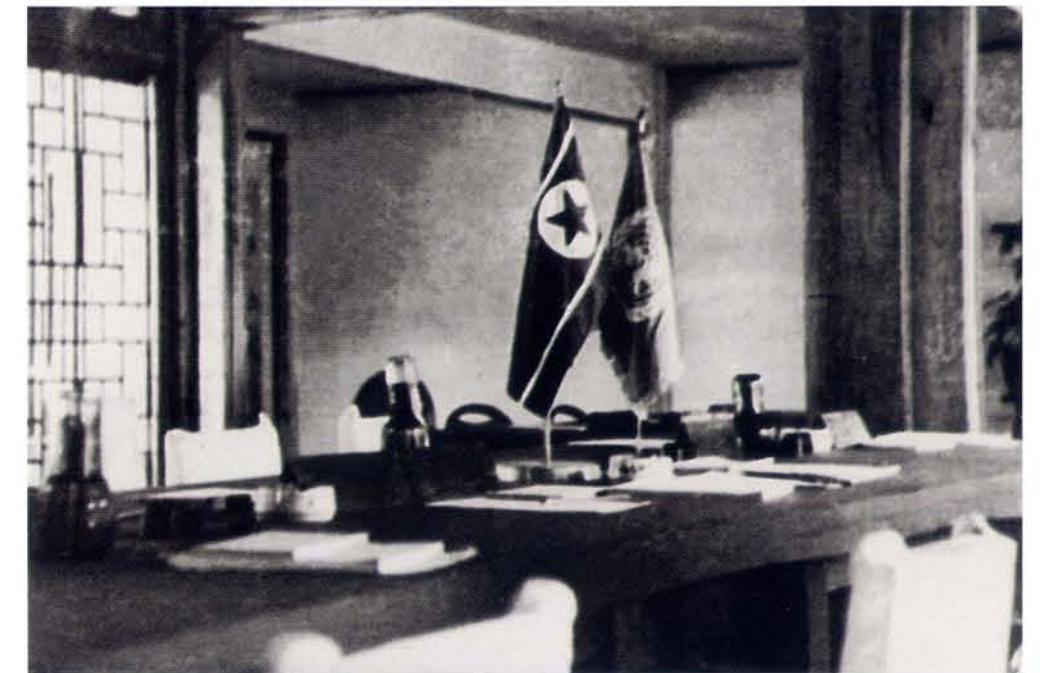
## 위대한 승리

영웅적조선인민과 인민군대에 의하여 돌이킬수 없는 군사, 정치, 도덕적패배를 당한 미제는 마침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였다.

정전협정에 항복도장을 찍은 클라크는 《나는 …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정전협정이 서명된 때로부터 12시간만인 22시 전 전선에서 전투행동이 완전히 중지되였다.

이날 수도 평양의 밤하늘에는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라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정전협정조인장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침략자들의 몰골

**종합전과:**

적살상 및 포로: 1 567 128명
그중 미제침략군: 405 498명
남조선괴뢰군: 1 130 965명
추종국가군대: 30 665명

전투기술기재
비행기로획: 11대
격추: 5 729대
격상: 6 484대
땅크로획: 374대
격파: 2 690대

장갑차로획: 146대
격파: 45대
자동차로획: 9 239대
격파: 4 111대
함선 격침, 격파: 564척

각종 포로획: 6 321문
격파: 1 374문
각종 저격무기로획: 925 152정 등

전승의 기쁨에 넘쳐있는 고지의 전투원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주체42(1953). 7.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주체42(1953). 8.



전국전투영웅대회장으로 들어가는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의 동상앞에서
영웅처럼 살리라 결의다지는 청년군인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공화국영웅 리수복

공화국영웅 강호영의 숭고한 정신을
따라배우는 새세대들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네놈들에 대한 복수심은 오히려 천배나 더 강하여졌다.
조선로동당원의 꺾을수 없는 투지와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굳게 다져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리라!》

공화국영웅 강호영

공화국영웅 조군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우리라 병사는 결의한다.

《내 팔다리가 떨어져나가도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의 증기는 결코 복수탄을 멈추지 않으리라.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공화국영웅 조군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찾은
전쟁로병들과 청년군인들

#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조선에서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실현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었다.

미제와 반동들은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위력과 영향력을 가로막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여 나섰다.

적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여 온 나라를 혁명적열기로 들끓게 하시였다. 그리고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은 한등급 이상의 군사직무를 맡아해낼수 있는 간부군대로, 현대적무기와 전술에 정통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자랐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은 군사를 성실히 배워 현대적군사지식과 전법들을 익히고 도처에 방어시설을 축성하여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군사전략상요충지대들이 잘 꾸려지고 자체의 현대적군수공업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령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신 전연의 대덕산초소를 비롯하여 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우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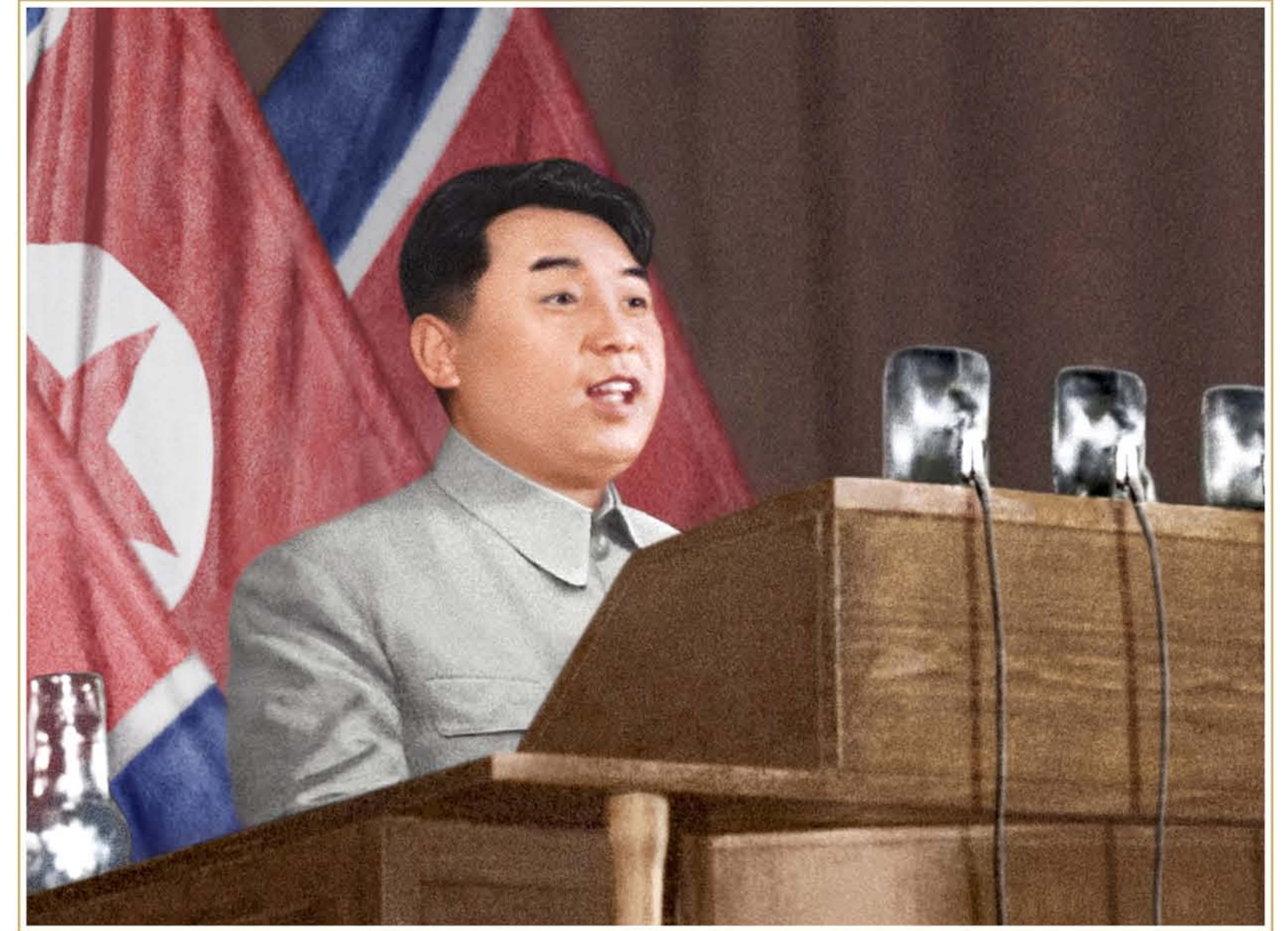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특히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군인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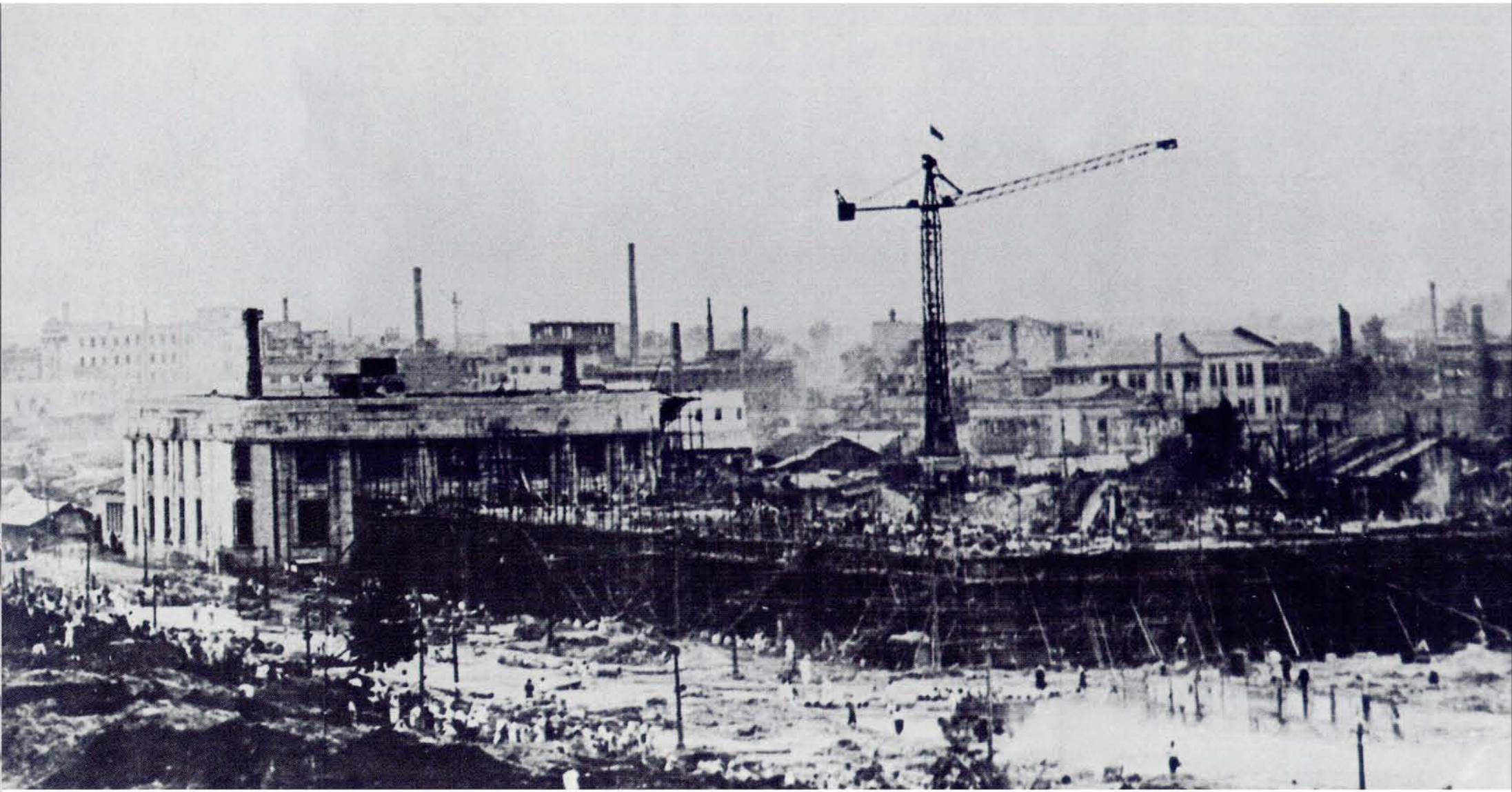
이 나날에 우리 인민군대는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주체적인 전법을 소유하고 그 어떤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도 능숙히 다룰수 있는 만능의 대오, 정예의 부대로 자라났으며 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무장력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그리고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민간방위무력이 더욱 강화되고 전국의 방방곡곡이 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졌다.

이 위력앞에서 적들의 침략적도발과 전쟁기도는 그때마다 산산이 분쇄되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 미제는 조선동해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무모하게도 《보복》하겠다고 날뛰였지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해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야말았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공의 기회를 노리였지만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공갈도 우리 인민을 놀래우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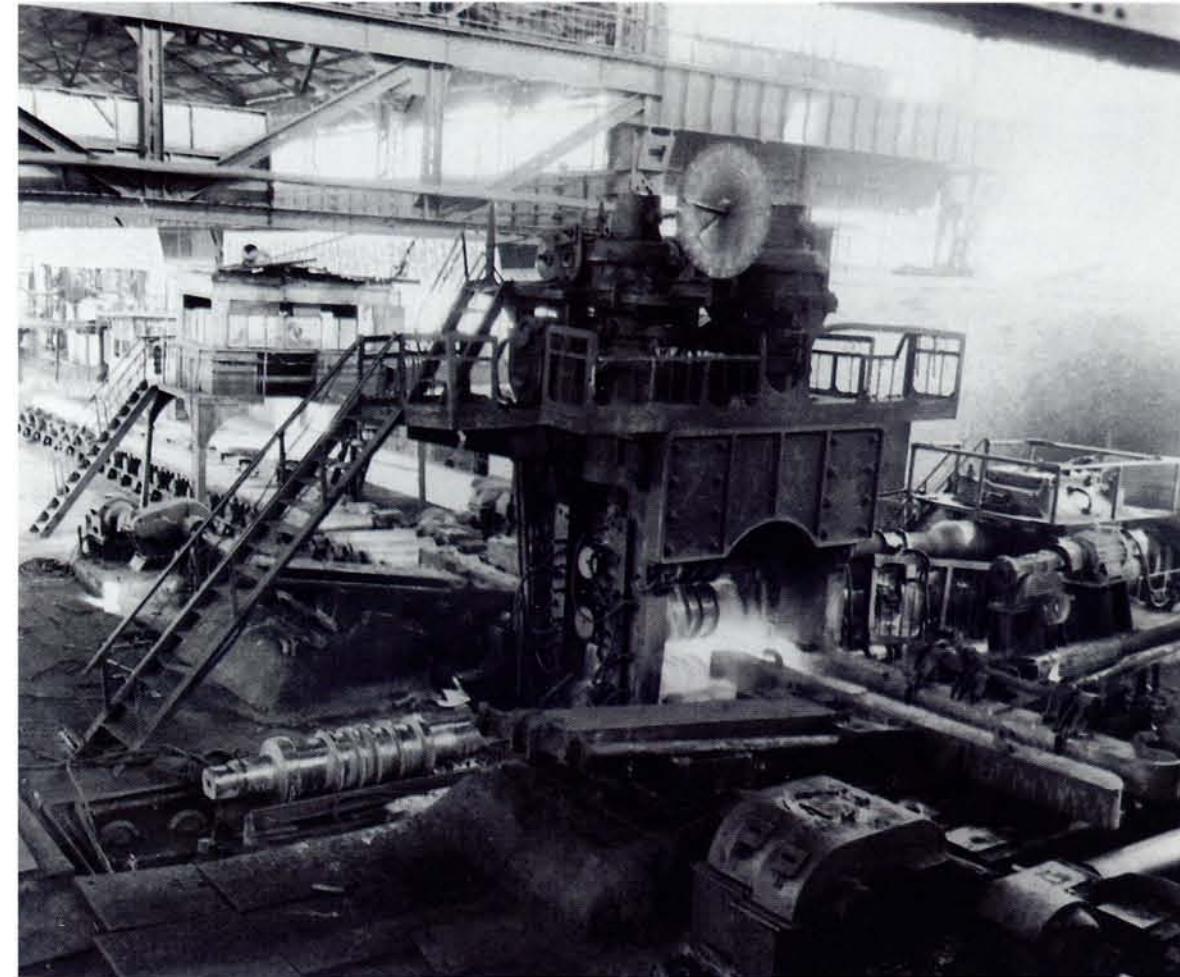
우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은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선 공화국의 위력과 권위는 세계만방에 떨쳐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 8.

피로써 지켜낸 조국을 복구건설하는데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

복구건설되는 평양시의 일부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5(1956). 12.

## 강선의 백양나무

3년간의 조선전쟁은 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나라의 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미제는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이였다.

이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믿으신것은 인민이였다. 주체42(1953)년 8월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타다 남은 백양나무밑에서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복구건설방도를 의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강소를 전쟁전보다 더 크고 훌륭하게 복구하여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무를 받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후 40일만에 첫 쇠물을 뽑아냈다. 그후 그들은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철을 뽑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강선의 백양나무는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풍모를 전하는 증견자로 오늘도 푸르러 설레이고있다.

강선제강소(당시)에서 분괴압연작업

강선의 백양나무

## 경제와 국방건설

1960년대초 나라안팎의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였다.

미제는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고 윁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주체51(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거의 같은 비중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전원회의에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가 제시되고 전체 인민이 당의 새 전략적방침관철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넘치는
천리마동상과 홰불행진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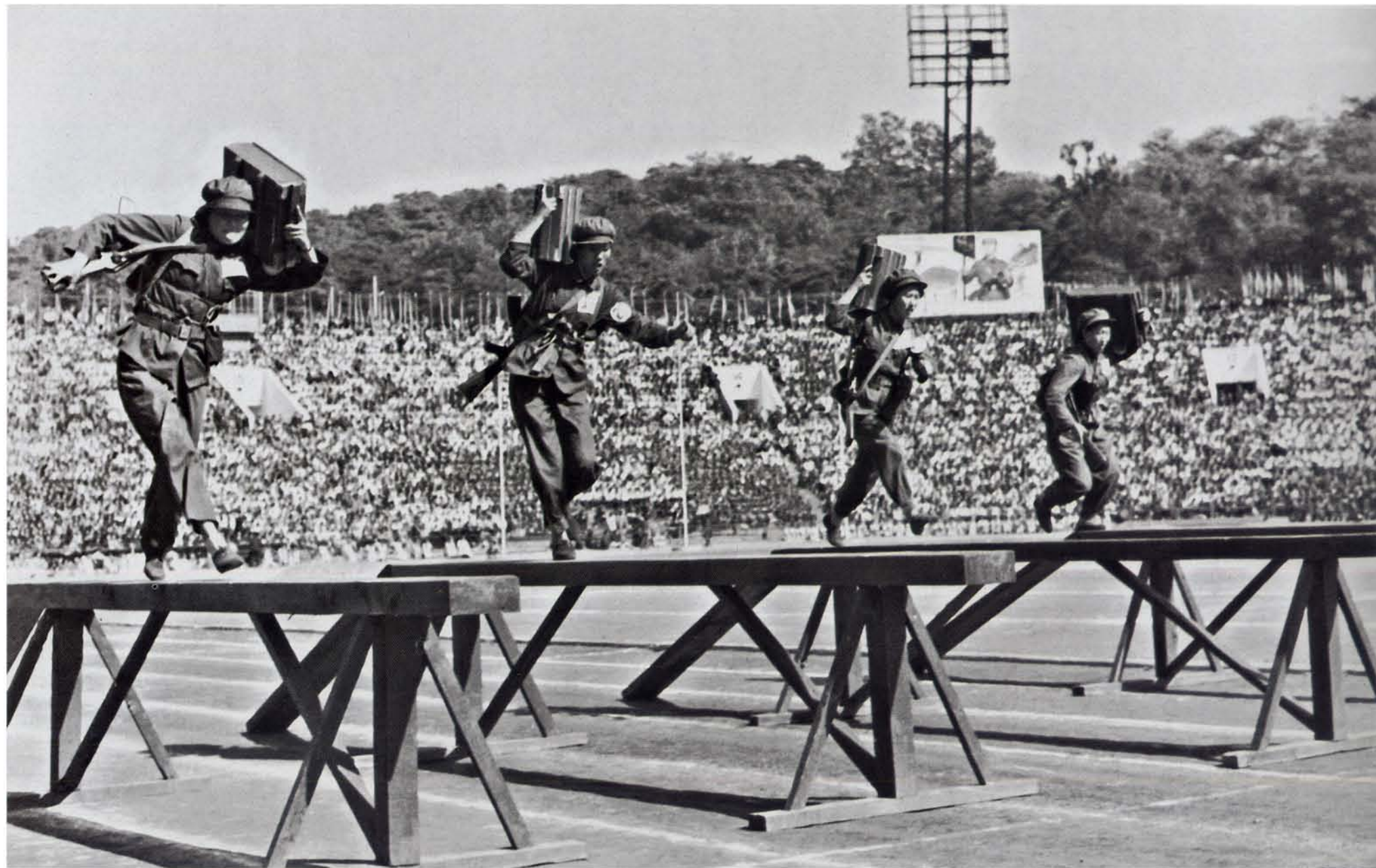
## 《일당백》

주체52(1963)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전연에 있는 대덕산초소의 인민군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앞에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인민군전사 한사람이 적 백명을 감당할수 있게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일당백》의 구호는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여 《일당백》의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4(1965). 5.

일당백의 초병으로 준비해가는 인민군용사들

로농적위대원들의 국방체육경기

로농적위대 사격훈련장에서

2. 8비날론공장은 군민이 힘을 합쳐 건설하였다.

## 군민이 힘을 합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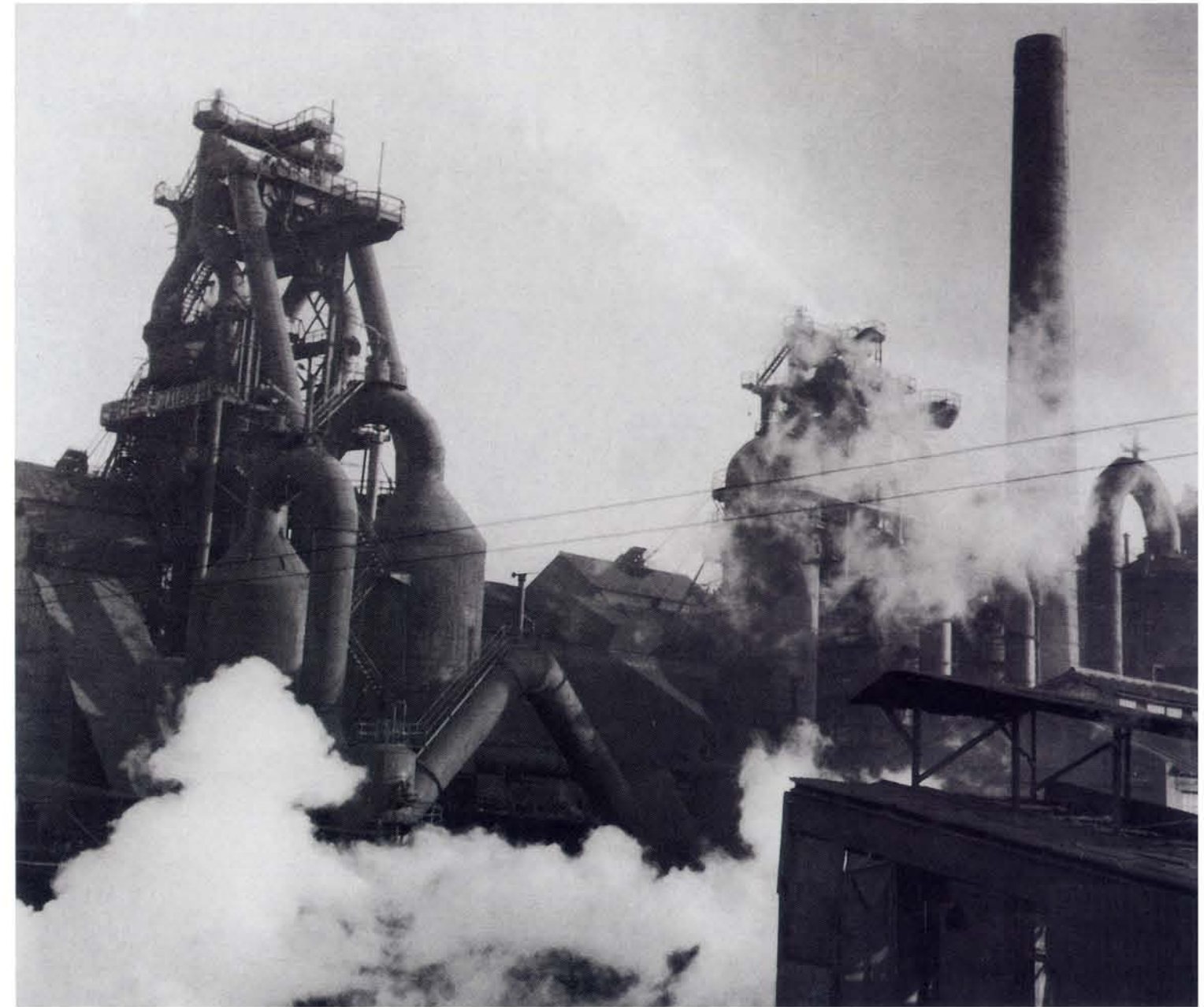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은 1960년대초에 건설된 2. 8비날론공장(당시)에도 깃들어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진행되여온 비날론에 대한 연구사업은 1950년대말에 와서 공업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세계적규모의 비날론공장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우리의 힘과 기술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장을 일떠세웠다.

군인들은 가장 큰 건물공사들을 맡아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충직하게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주었다.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당시)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붉은기1》호 전기기관차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5(1966). 5.

경제와 국방건설에 크게 기여한 황해제철소(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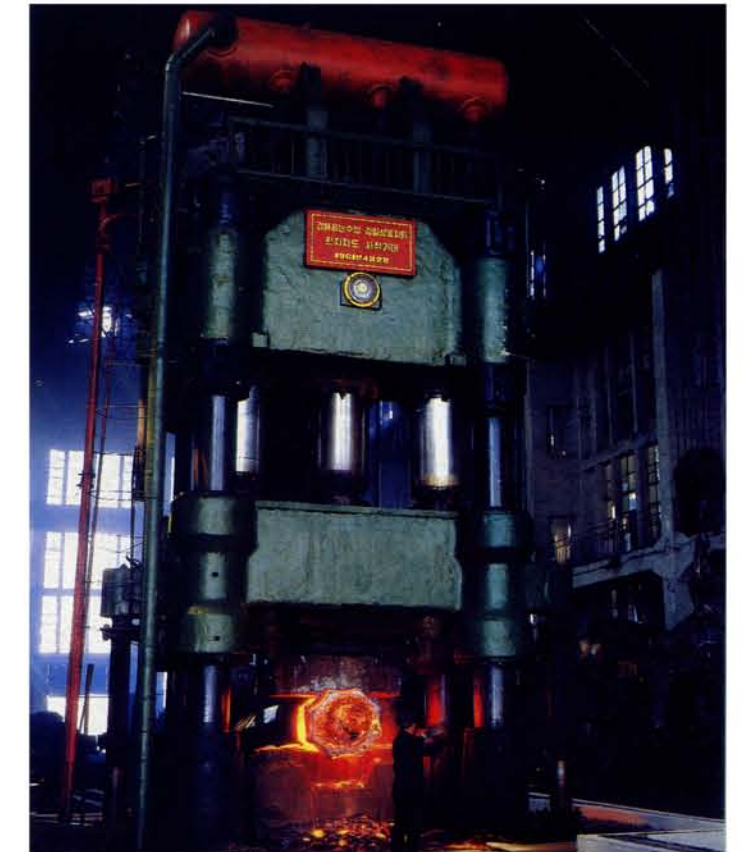
## 룡성의 로동계급

주체56(1967)년 6월 룡성기계공장(당시)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가하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이 공장 로동계급이 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룡성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1960년대에는 3천t프레스와 6천t프레스, 1970년대에는 20m대형선반과 18m타닝반, 1980년대에는 1만t프레스를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20m대형선반

8m타닝반(우)과 3 000t프레스(아래)

1968년 1월 23일 공화국북반부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

자백서를 쓰고 있는 함장 로이드 마크 부쳐

## 《푸에블로》호사건

주체57(1968)년 1월 우리 나라 령해깊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나포되였다.

미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보복》을 운운하면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군함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사태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책동을 우리 나라와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파렴치한 침략책동으로 단호히 규탄하시면서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립장과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 불패의 힘에 겁을 먹은 미제는 세계의 면전에서 저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떤 함선도 공화국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담보한다는 사죄문에 서명하였다.

조선인민군은 그후에도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침입사건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정탐파괴행위를 단호히 징벌함으로써 필승불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주체64(1975)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령도에 의해 은률광산에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건설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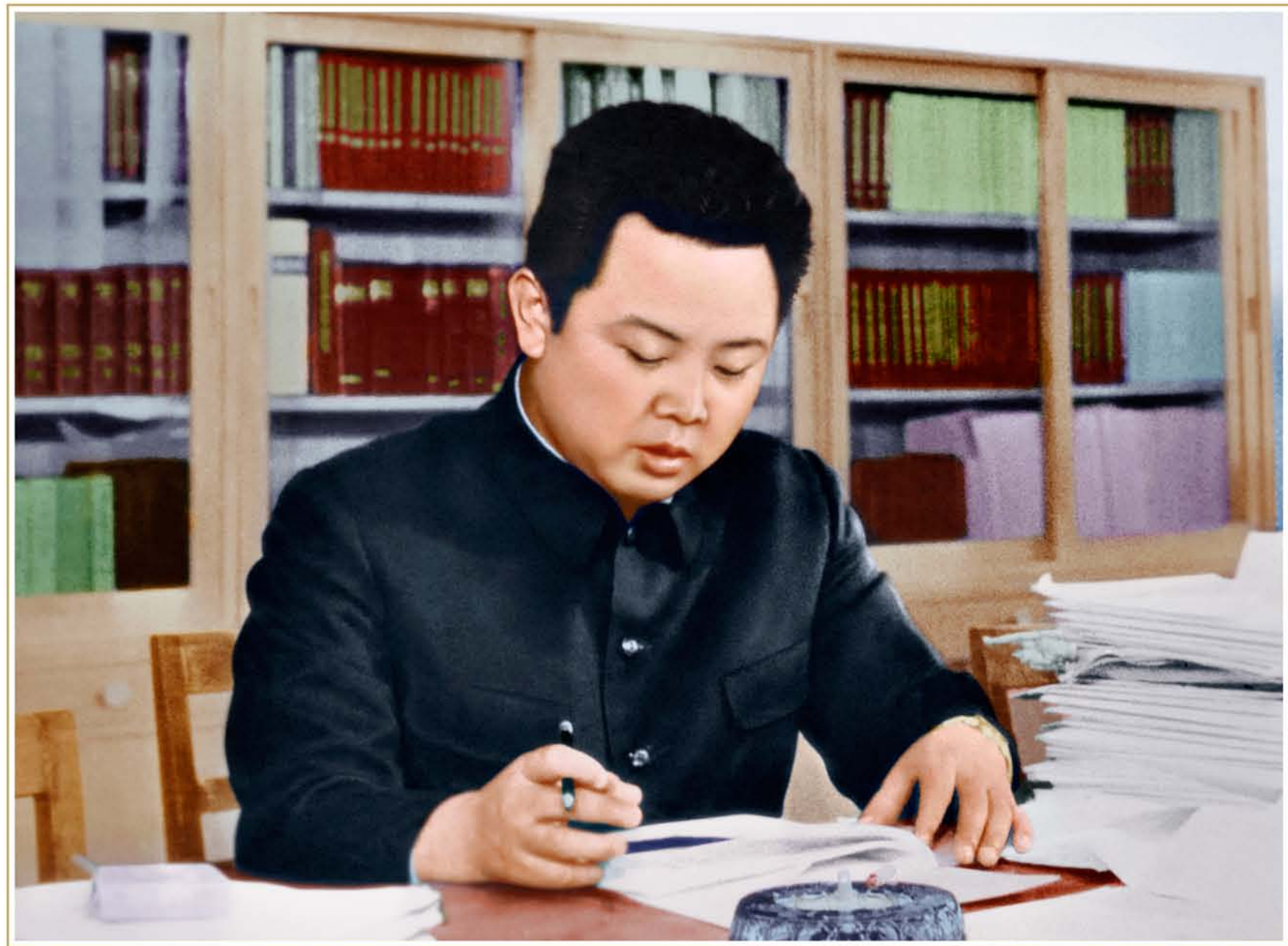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 은률광산의 박토처리문제는 광산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건설하여 박토를 바다 한가운데로 내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짧은 기간에 완성하도록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광구의 깊은 막장에서부터 서해바다에로 박토가 옮겨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여러 섬들을 련결하면서 수천정보의 새땅까지 얻게 하였다.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 6.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9(1980).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이 되는 주체71(1982)년 4월에 제막된 주체사상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해방하고 개선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세운 개선문 주체71(1982). 4.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에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 11.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 10.



영웅메달이 부각된 혁명렬사릉전경

## 혁명렬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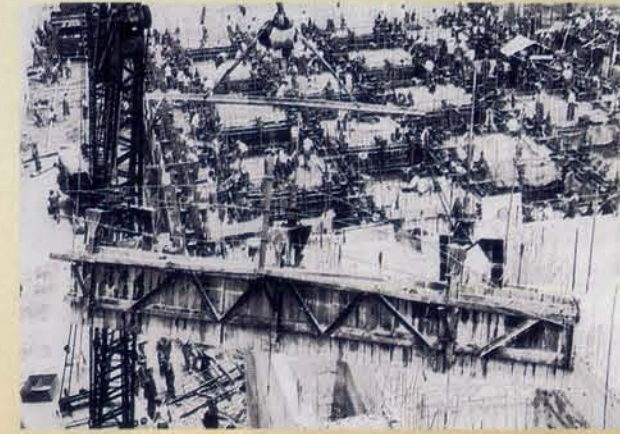
평양시의 대성산 주작봉마루에 혁명렬사릉이 있다.

혁명렬사릉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의 혁명정신과 업적을 길이 전하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혁명적의리에 의해 주체64(1975)년에 세워졌고 그후 주체74(1985)년에 새로 개건확장되였다.

총부지면적은 30정보이며 1 800m의 종심에 릉대문, 기념문주, 군상마당과 교양마당, 반신상구역 등이 있다.

교양마당과 군상마당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와 헌시비가 세워졌으며 항일혁명렬사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상징하는 공화국영웅메달을 부각한 화환진정대,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돌조각군상들과 추모군상들이 숭엄하게 형상되여있다. 반신상구역에는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이 세워져있고 배경에 높이 11m, 길이 22. 2m의 화강석으로 된 붉은 기발이 모든 동상들을 감싸안고있는듯이 형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경축 군중시위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해갑문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

서해갑문

## 서해갑문

서해갑문은 대동강하류 끝살뿌리—피도—광량만사이의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건설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어렵고 방대한 갑문건설공사가 불과 5년동안에 완공되였다. 이 건설에서 처리된 토량은 1 500여만㎥, 콩크리트타입량은 200여만㎥, 채취운반된 돌과 골재는 1 600여만㎥이다.

서해갑문에는 3개의 갑실과 36개의 수문이 설치된 언제가 있다. 갑실로는 수만t급의 배들이 동시에 통과할수 있다. 언제우에는 자동차길, 기차길, 사람다니는 길이 있으며 언제밑에는 바다물고기를 인공저수지에 끌어들이는 3개의 물고기길이 있다.
갑문이 건설됨으로써 서해지구의 륙해운수와 농업생산, 인민생활과 환경보호사업에서 큰 전변이 이룩되였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6(1987). 4.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주체81(1992). 4.

## 경축열병식

주체81(1992)년 4월 25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이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민족의 대경사속에 진행된 열병식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과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가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장

열병식에 참가한 기계화종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근로자들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장병들의 례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할
결의를 다지는 군인들과 근로자들

#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시고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와 제국주의반동은 변함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해마다 자연재해도 겹쳤다. 게다가 주체83(1994)년 7월에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는 대국상까지 당하였다. 그로 하여 나라의 전력과 자재사정이 긴장해져 공장, 기업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인민들은 극도의 식량난, 생활난을 겪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엄혹한 난국앞에서 총대에 의거하여서만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철석의 신조를 더욱 굳히시며 피눈물의 해를 보낸 이듬해 설날아침에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선군정치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시고 선군혁명로선을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선군정치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승리만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1211고지와 오성산, 대덕산을 비롯한 전연구분대들과 서해바다의 외진 섬방어대, 적들과 코를 맞대고 있는 판문점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만도 무려 18만여리에 달하는 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령장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이 온 대오안에 철저히 확립되였다. 그리고 강력한 국방공업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된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적무기와 기재에도 정통하고 주체적전법에 숙달됨으로써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위력을 떨치게 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와 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요구되는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원군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도 보다 철저히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도록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높은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을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보장되도록 하심으로써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반석같이 다져지고 혁명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건설장마다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서고 온 나라 인민들속에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번져 대규모발전소들과 현대적인 축산, 양어기지들, 정리된 대규모토지들과 개천—태성호물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등 선군시대를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열기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더욱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까지 관계개선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도 더욱 높아졌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였을뿐 아니라 새 세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았다.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주체84(1995). 1. 1.

## 다박솔초소

주체83(1994)년 7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는 대국상을 당한 온 나라는 피눈물에 잠기였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다.

여기에 참혹한 자연재해와 경제난, 식량난까지 겹쳐들었다.

세계의 눈길이 생사기로에 놓인 조선에 쏠렸다.

피눈물속에 밝아온 주체84(1995)년 1월 1일 아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의 한 부대가 지켜선 다박솔초소를 찾으시고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나는 앞으로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력사에 령도자의 선군정치의 출발점으로 새겨진 이날의 현지지도는 총대를 틀어쥐고 군대에 의거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시대와 력사앞에 선언한 력사적인 현지지도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는 다박솔초소 군인들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초소의 군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덕산초소를 시찰하시였다. 주체85(1996).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성산일대에 위치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적정을 청취하시며 지형을 료해하시였다. 주체85(1996). 3.



## 오 성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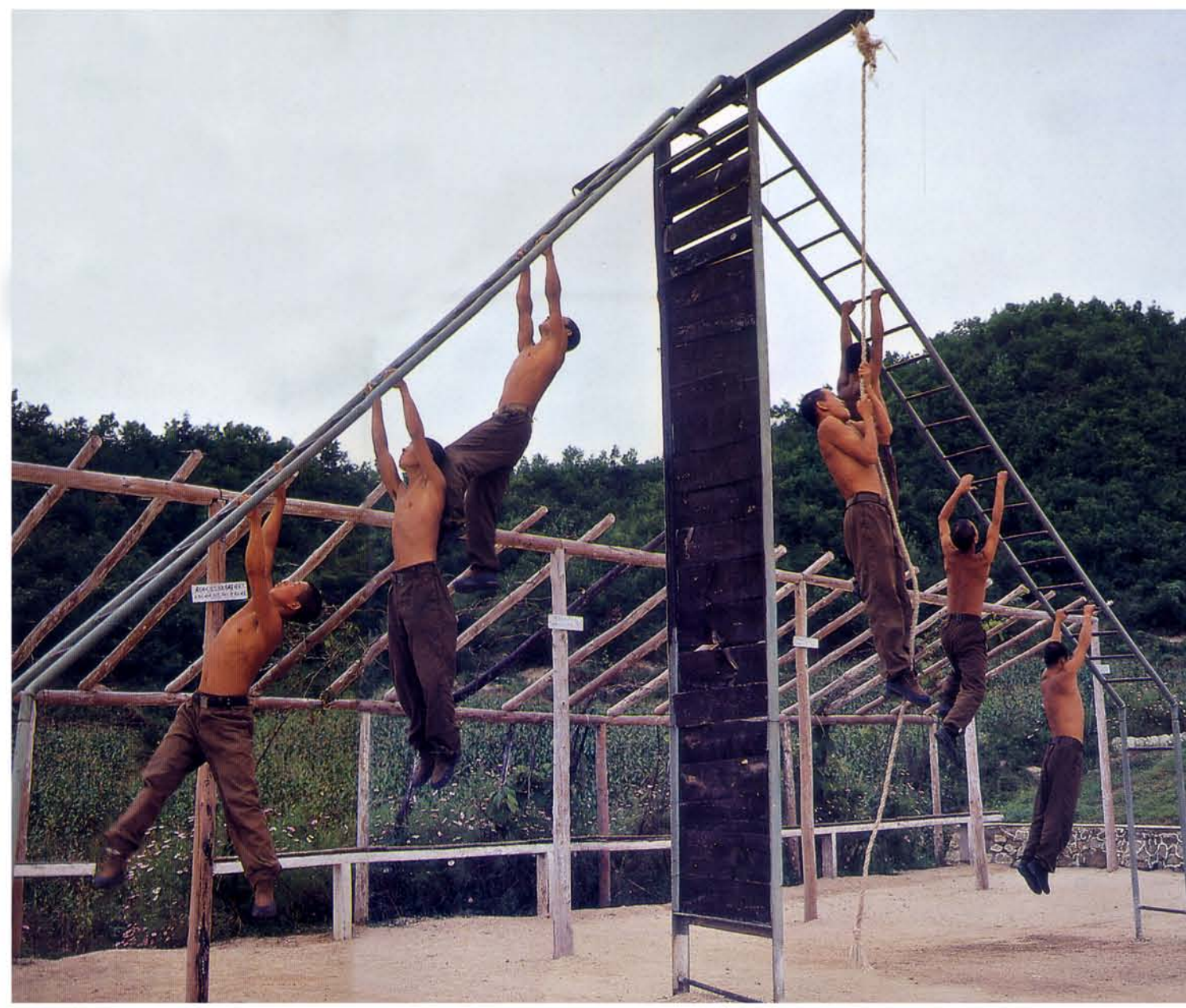
주체87(1998)년에 이르러 미제의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자연의 횡포한 재난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조선혁명앞에 가장 큰 시련과 난관이 닥쳐온 이 준엄한 시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기어이 구원할 각오를 안으시고 최전방초소들을 련이어 시찰하시였으며 이해 여름에는 험한 최전연고지인 오성산에 오르시였다.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백수십굽이의 위험한 칼벼랑길을 한치한치 톺아오르시며,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몸소 어깨로 떠미시며 기어이 해발 1 000여m의 산정에까지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사랑하는 조국을 결사수호할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구원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였다.

조선인민군 장갑보병중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 1.

강철의 의지와 투지를 키워가는 군인들

땅크기동훈련

조선인민군 해군 전투함선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 2.

조선인민군 구분대식당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2(2003). 1.

비상소집훈련

항공륙전대훈련

## 철 령

철령은 예로부터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 아흔아홉굽이나 되는 험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철령을 한해에도 몇차례씩이나 넘나드시며 최전연부대들에로의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명절날과 휴식날, 눈비내리는 궂은날에도 이 령을 넘으시였고 이 길에서 한덩이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차안에서의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하시였다.

어느해 태양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병사들생각이 간절해진다고, 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가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다 하시며 이른아침 가파로운 철령을 넘어 최전연부대를 찾아가시였다.

어느날에는 보초근무를 서는 평범한 군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찬바람부는 령마루에서 20분간이나 기다려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군사복무를 잘하도록 고무해주시고야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철령령마루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조선인민군 병사 박광철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5(1996).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녀성해안포중대 병사 손경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6(1997). 11.

## 감나무초소

감나무초소는 녀성해안포중대가 자리잡고있는 곳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감나무초소를 여러 차례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병사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바다바람에 얼굴이 튼 녀성군인들을 위하여 고약과 약크림을 보내주신 이야기며 어머니의 뒤를 이어 초소를 지켜선 병사를 기특히 여기시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그후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의 부모들을 찾아 딸의 안부도 전해주신 이야기,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 하신 병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또다시 초소를 찾아주신 이야기며 녀성군인들의 전망문제와 제대후 생활문제까지 일일이 헤아려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신 이야기…

참으로 감나무초소가 전하는 가지가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마음을 담아 공화국영웅 길영조의 안해가 드리는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 10.

## 영생의 품

조선인민군에는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자폭영웅, 육탄영웅들이 수없이 많다.

비행사 길영조도 그들중의 한 사람이다.

주체81(1992)년 전투훈련도중 비행기동체에 불이 달리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몇초만 지나면 비행기는 폭발할것이였다.

지휘관들은 안타깝게 탈출을 명령했지만 길영조는 불붙는 비행기의 기수를 가까스로 바다쪽으로 돌리고 비행기와 함께 자폭의 길을 택하였다.

길영조에게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고 그가 복무하던 비행대대와 그의 모교가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으며 전군이 길영조영웅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공화국영웅 길영조의 모교에 세워진 동상앞에서 영웅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는 군인들과 학생들

김광철영웅은 훈련도중 뜻밖에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대원들을 구원하고 20대의 청춘을 바친 지휘관이였다.

주체87(1998)년 5월 김광철영웅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형의 뒤를 이어 중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고있는 영웅의 동생을 만나시고 부모의 안부도 물으시며 뜨겁게 고무해주시였으며 전군이 영웅의 모범을 따라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영웅 김광철의 동생 김윤철을 만나시였다.
주체87(1998). 5.

조선에서 감행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만행자료들을 보면서 적개심에 불타는 군인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신천에서 감행한 학살만행을 규탄하면서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를 다지는 인민군군인들

훈련의 쉴참에

## 2월의 명절 경축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세계평화를 수호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 인류공동의 국제적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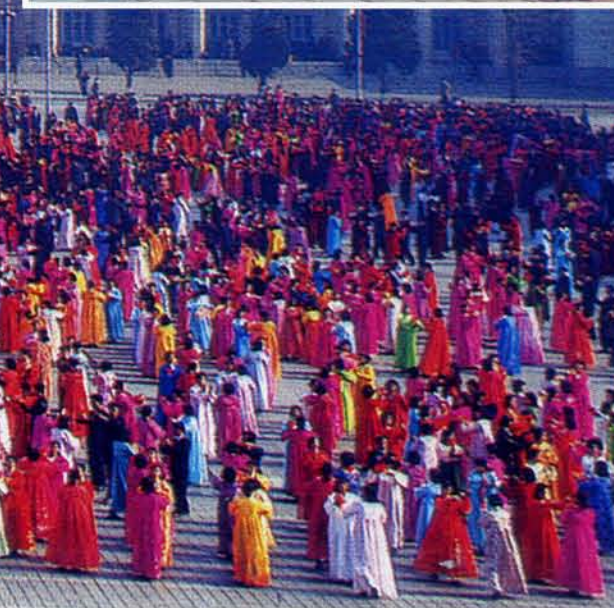
령도자의 고향인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 각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에 2.16경축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수도 평양과 각 도, 시, 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에서 보고대회와 보고회, **김정일**화전시회, 사진전시회, 경축공연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고 경축집회, 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고있다.

특히 주체91(2002)년 2월 세계5대륙의 각계층인사들은 백두산밀영지구에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가지고 해마다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을 21세기의 태양맞이월간으로 정하고 태양의 성지방문을 정례화해나가기로 한 백두산선언을 발표하였다.

백두산밀영의 밤하늘에 축포가 오른다.

2.16경축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주체91(2002).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진행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

주체92(2003)년 2.16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무도회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백두산과 삼지연을 찾은 군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갈 결의를 다지는 군인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장

##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로

오중흡7련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하였으며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사선에도 남먼저 뛰여든 조선인민혁명군부대였다.

주체85(1996)년부터 조선인민군안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이어받은 대중적사상혁신운동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중적대진군운동이다.

# 군인들의 지성어린 선물

주체91(2002)년 4월 인민무력부선물관이 새로 건설되였다.

총건평 1만여㎡에 달하는 선물관에는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지성어린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화, 유화, 보석화, 조각, 공예품 등 각이한 형식의 선물들에는 군건설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 주체혁명위업을 무력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 군인들의 충성의 결의가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올린 지성어린 선물을 전시한 인민무력부선물관의 일부



나무조각 《태양절에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

나무조각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85돐경축, 조선인민군창건 65돐경축 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 4.

《선군정치》, 《동지애》, 《일심단결》의 글자를 새기며 도도히 흘러가는 홰불시위행진대오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장

## 원군미풍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원군사업이 전 사회적인 애국충정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주체91(2002)년 11월 평양에서는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여 원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원군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것은 온 사회를 원군기풍으로 들끓게 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11개의 입대증을 가지고있는 리치선군인가정

## 총대가정

오늘 조선에서는 총대가정이라는 말이 시대어로 자랑높이 불리우고있다.

온 가족이 대를 이어가며 군복을 입고 초소를 지키는 총대가정들은 나라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조선에서 총대가정을 꾸리는것은 사회의 풍조로 되고있다.

쉴참에 농장원들과 오락회를 하고있는 군인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신입대원들

## 선군정치의 나팔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고있는 전투적예술부대이며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선군정치의 나팔수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고있는 합창단은 최고사령부와 함께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을 종군하면서 혁명적인 노래로 군민에게 무적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공연장면들

## 군인가족들의 예술무대

주체87(1998)년부터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이라는 특색있는 예술무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군인가족들을 총잡은 남편들과 함께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발기와 뜨거운 배려속에서 진행된 경연들은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가려는 군인가족들의 혁명적각오와 고결한 사상감정, 랑만적인 생활을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경연은 해마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

## 안변청년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는 인민군군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이 건설공사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받아안은 군인들은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길굴착공의 첫날부터 막장에서 순간도 떠나지 않은 지휘관과 병사들, 뜻밖의 정황으로 도화선이 못쓰게 되자 주저없이 한몸 그대로 《자폭도화선》이 되여 발파를 보장한 병사, 붕락으로 하여 굴속에 갇힌 속에서도 밥보다 압축공기를 보내달라며 굴함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한 군인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이 군인들의 심장속에 맥박친 신념이고 의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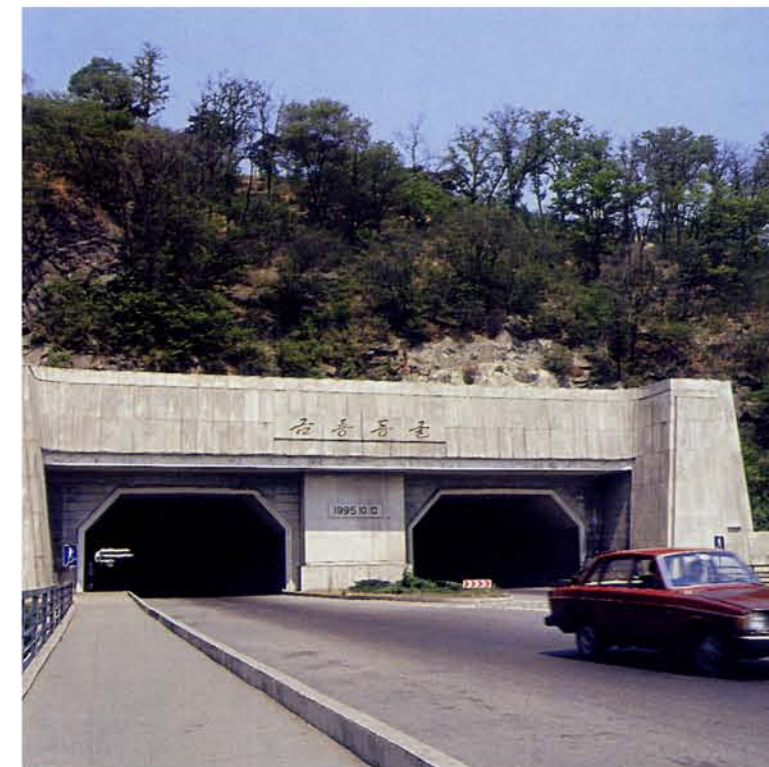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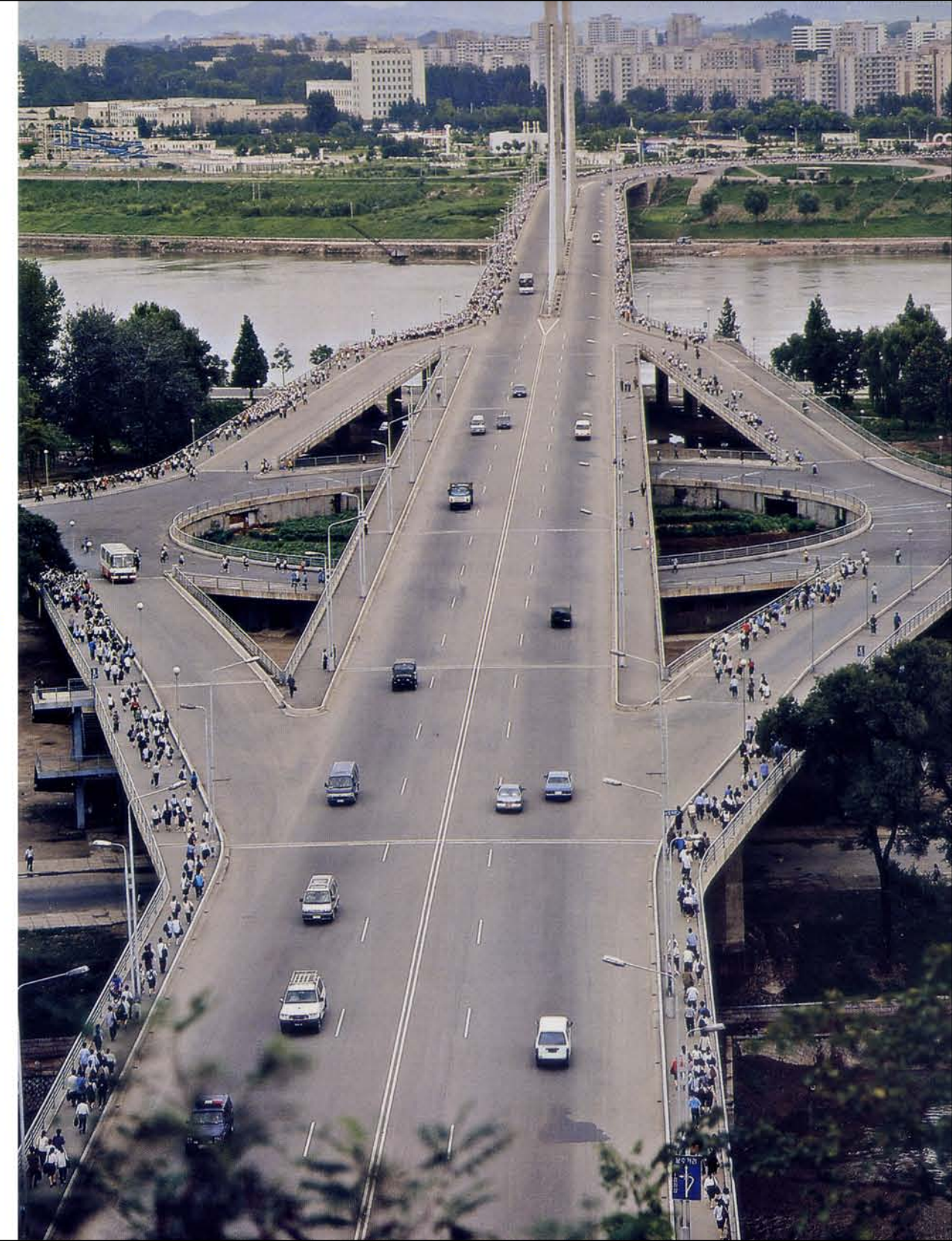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군인들의 고귀한 사상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하시고 전군, 온 사회가 이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안변청년2호발전소

## 금진강발전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긴장해진 전력문제를 자체로 풀어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여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한사람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대규모 및 중소규모발전소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주체91(2002)년 10월 정평군인민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군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규모의 금진강발전소를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것은 하나의 실례이다.

금진강발전소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금릉동굴과 청류다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청년들이 사상과 의지
의 힘으로 건설한 청년영웅도로

## 자강도사람들

우리 나라 북부산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자강도는 공업발전을 위한 자원도, 농사지을 번듯한 포전도 별로 없고 교통조건도 불리한 고장이다.

그리하여 고난의 행군시기 그 어느 도들보다 엄혹한 시련을 겪게 되였다.

그러나 자강도인민들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풀뿌리와 나무껍질, 벼뿌리와 강냉이대를 씹으면서도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자체로 풀었으며 고산지대에 맞는 2모작, 3모작영농방법을 찾아내여 식량문제를 풀어나갔다.

또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과 락관의 구호를 부르며 경제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숨죽었던 공장들을 살려냈으며 가는 곳마다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자랑찬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라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한 자강도사람들의 투쟁기풍은 강계정신으로 명명되여 전국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타올랐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자강도사람들

대홍단으로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은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서 결의를 다지였다.

장군님 다녀가신 고향땅에 온 군사 복무에서 단련된 제대군인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 3.

# 천지개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인 토지정리의 거창한 력사가 창조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의 토지를 사회주의농촌의 땅답게 정리할 휘황한 전망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7개 단위의 토지정리전투장을 현지지도해주시고 100여차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여 이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시였다.

강원땅에 토지정리의 첫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5년간 정리된 토지면적은 총 23만 6 360여정보이다. 토지정리로 7 786정보의 토지가 새로 늘어나고 179만 7 751개였던 논배미가 70만 6 567개로 줄어들고 바둑판처럼 정리되였다.

가장 간고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력사적인 토지정리사업으로 우리 나라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마지막잔재까지 완전히 없애는 천지개벽의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강국건설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대각언제

## 자연흐름식관개체계

주체91(2002)년 10월 독특한 자연흐름식관개체계인 개천—태성호물길공사가 완공되였다.

개천시 대각리로부터 강서구역 태성호에 이르는 150여㎞ 구간에 수십m의 폭으로 뻗어나간 물길의 완공으로 하여 대동강물이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서부지구의 15개 시, 군, 구역 10만정보의 논밭에 관개용수를 풍족히 대주어 이 지대의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개천—태성호물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인민군대와 인민이 영웅적투쟁으로 이룩한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재부이다.

연연히 뻗어간 개천—태성호물길

대홍단군 홍암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 8.

## 대홍단

대홍단은 조선의 북부 백두대지에 자리잡고있는 고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혁명업적이 깃든 력사의 땅 대홍단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 대홍단은 종합적기계화의 동음 울리고 새 생활이 약동하는 리상촌으로, 감자의 명산지로 되고있다.

홍암농장 감자밭

감자수확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해 정열을 바쳐가는 연구사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양어장

## 도처에 일떠선 양어장

강과 호수가 많은 조선에서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양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양어를 발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그 앞장에 인민군대를 세워주시였다.

하여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양어장들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메기, 잉어, 칠색송어, 뱀장어 등 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고있다.

함경남도에서 건설한
광명성제염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정제소금공장

## 축산에서의 전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끊임없는 로고속에 축산분야에서 큰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송암명기소목장,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을 비롯하여 염소, 소, 양과 같은 풀먹는 집승을 기르는 현대화된 목장들과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타조목장, 닭공장들이 도처에 건설되여 고기와 알생산을 적극 늘여가고있다.

현대적인 닭공장과 염소목장들이 도처에 건설되였다.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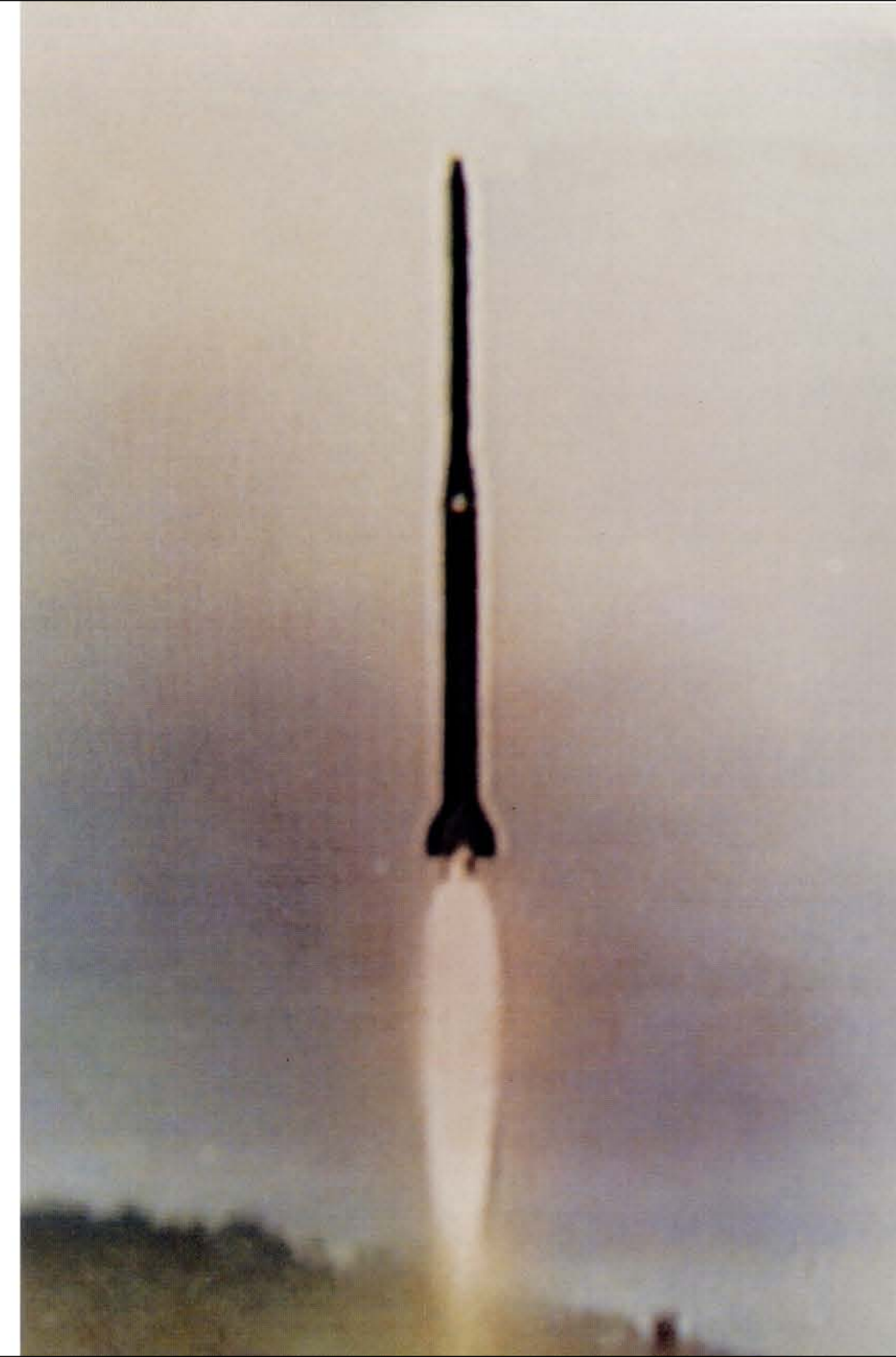
## 《광명성-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주체87(1998)년 8월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며 우주공간에 날아올랐다.

인공지구위성과 위성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들은 100% 자체의 과학기술과 지혜로 설계제작한것이며 단 한번의 발사로 위성은 자기 궤도에 진입하였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성보유국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된 이 경이적사변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다.

하기에 과학자들은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호칭인 《광명성》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광명성-1》호 발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앞장서고있는 과학자들

·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
· 집적회로연구사들

과학원 박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주체90(2001). 8.

## 라남의 봉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 선군시대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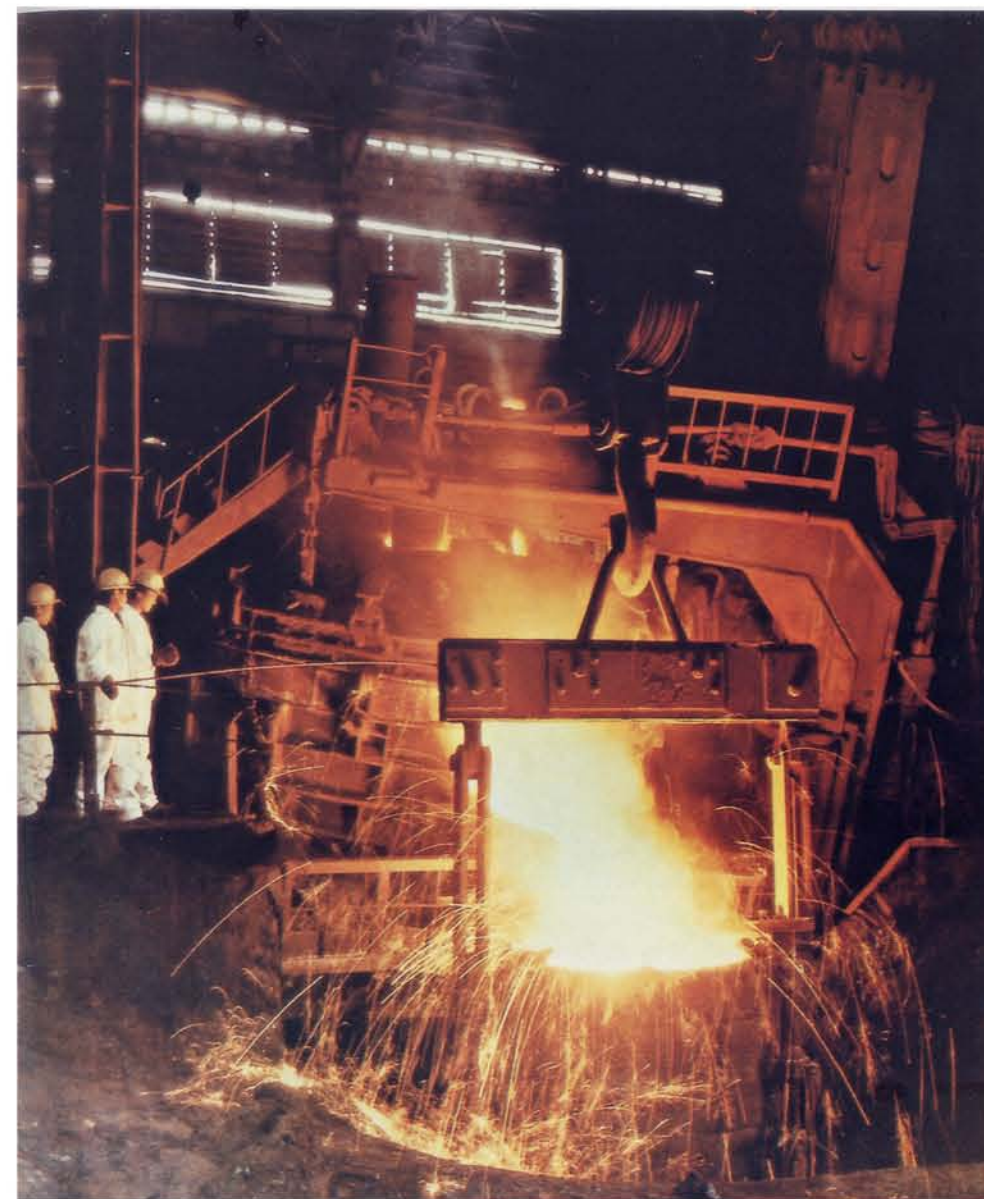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기업소앞에 제기된 아름찬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옹근 2개의 큰 공장을 새끼쳤고 현대과학기술의 집합체라 할수 있는 최첨단기계설비를 자체의 기술로 훌륭히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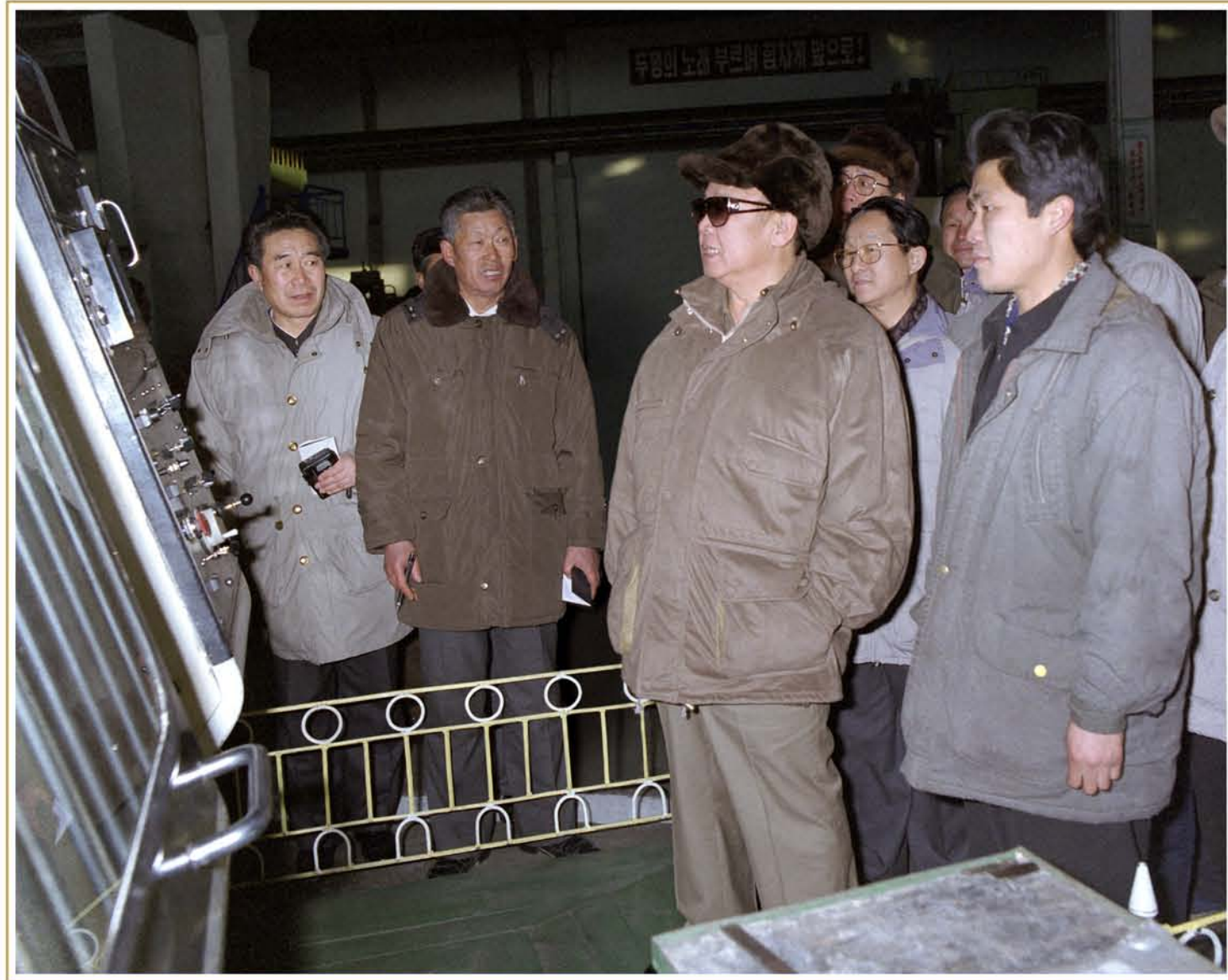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라남로동계급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들이 창조와 혁신의 봉화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도록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새 세기 첫해에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라남의 봉화로 명명되여 전체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의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콘베아직장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1㎥유압진자조종식굴착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발전설비생산

강철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킨다.

영웅칭호를 받은 15t공기마치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 1.

현대적인 공작기계생산을 다그치고있는 구성공작기계공장

제품생산에서 혁신하고있는 신의주방직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로동자들

·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어린이들에게는 콩우유가 중단없이 공급되였다.
· 대동강맥주공장에서 병맥주생산

## 나라의 왕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어린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세워진 학생소년궁전과 야영소, 학교들에서는 노래소리, 글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인민들이 《왕차》라 사랑담아 부르는 콩우유차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유치원, 탁아소들을 찾아왔으며 어김없이 진행된 개학날에는 교복과 학용품도 일식으로 공급되였다.

하기에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친아버지에게 아뢰듯 자기들의 진정이 담긴 편지도 때없이 올리군 한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비전향장기수들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 통일애국투사들

혁명전사들에 대한 고결한 사랑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다.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통일애국투사로 조국과 인민앞에 내세워주시였으며 빼앗긴 청춘을 되찾고 삶의 희열과 랑만에 넘쳐 생활하도록 세심히 보살피시였다.

그 사랑속에 비전향장기수 리재룡동지가 자식을 보았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축복**》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전향장기수 리재룡의 가정에 태여난 애기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주시였다.

휴양의 나날 고마운 조국의 향취에 한껏 심취되여있는 비전향장기수들

## 만년재보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명승지들을 찾으시여 온 나라의 명산, 명승지들을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장수산, 룡문대굴, 송암동굴, 울림폭포를 비롯한 명산들과 명승지, 명소들이 만년대계의 재보로 훌륭히 꾸려져 후대들에게 안겨지게 되였다.

서해의 명산—장수산

동해의 명산—칠보산 종각봉의 겨울풍경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룡문대굴(왼쪽), 울림폭포와 비단폭포(오른쪽)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심원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2(2003). 2.

심원사

설명절날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세쌍둥이

## 꽃피는 민속전통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 대대로 전해온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은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훌륭히 개화만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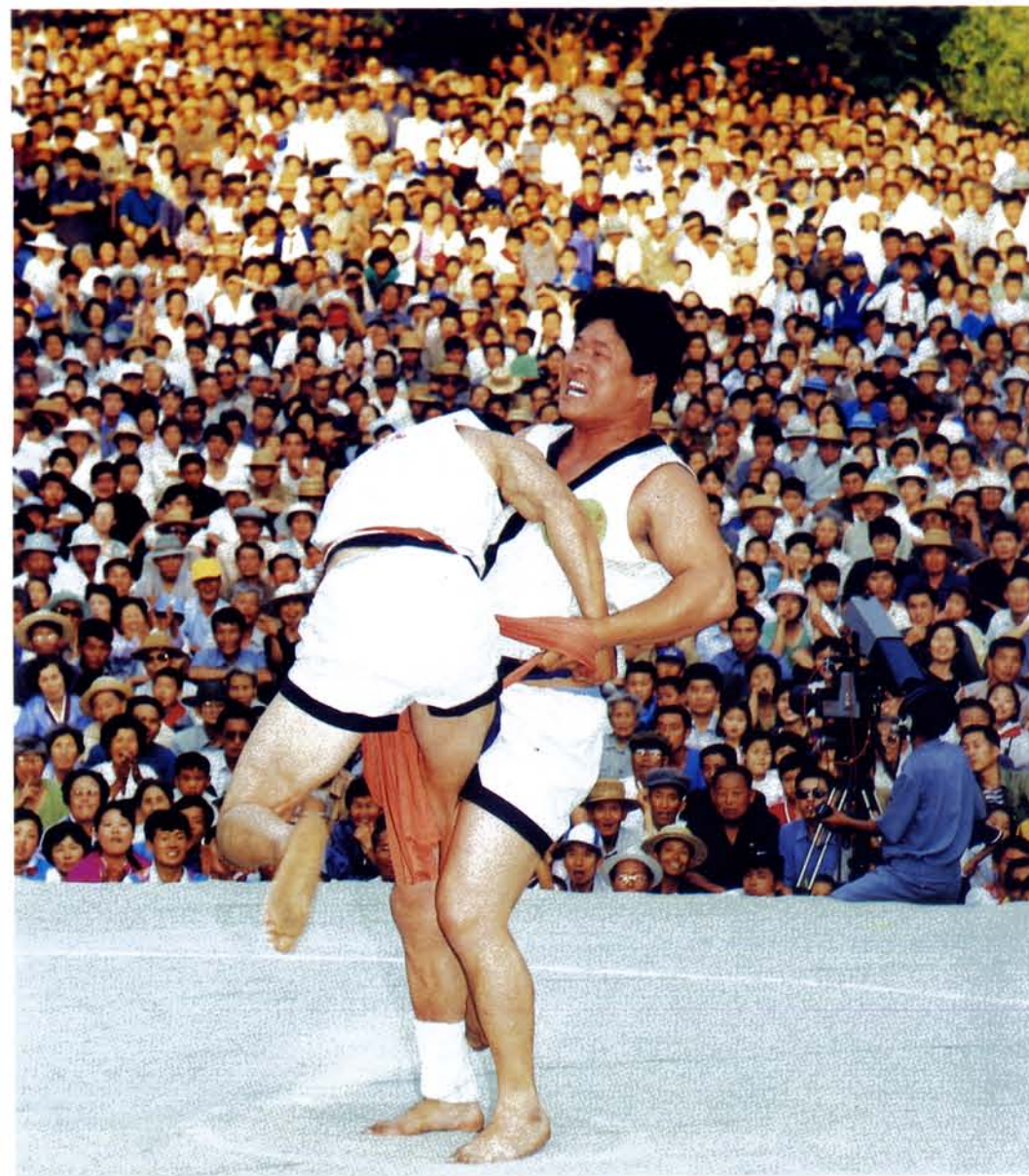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속전통을 옳게 살려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설명절, 정월대보름, 한가위와 같은 전통적인 민속명절들을 더 성대히 쇠게 되고 옷을 입어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옷을 입으며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어도 민족적선률과 률동이 흘러넘치는 민요, 민속무용을 즐겨하고있다.

명절날, 휴식일이면 팽이치기, 연띄우기, 장기, 씨름을 비롯한 민속놀이로 흥성이고 국수, 찰떡, 약밥, 김치를 비롯한 민족음식들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풍기고있다.

민속놀이 · 연띄우기 · 팽이치기 · 줄넘기 · 윷놀이

민족음식들

제1차 대황소
상전국근로자
들의 TV민족
씨름경기에서
시상한 금소방
울과 황소들

민족경기－씨름



민족경기－그네뛰기

민족경기－널뛰기

##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주체91(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국제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한 조선의 예술인, 체육인들과 청년학생들, 어린이들 10만명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작품은 서장과 《아리랑민족》, 《선군아리랑》, 《아리랑무지개》, 《통일아리랑》의 4개 장, 종장으로 구성되였다.

작품은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민요 《아리랑》을 형상의 중심에 세우고 나라잃은 설음을 안고 정든 고향산천과 리별하여 수난속에 헤매이던 조선인민이 나라와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이 되여 행복한 삶을 누리며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결합시킨 독특한 형식의 작품은 씩씩하고 랑만적인 체조와 교예,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과 무용, 천변만화하는 배경대와 장중한 영사화면, 화려한 그림과 현란한 빛세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경을 펼쳐보였다.

예술의 대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국보적명작인 이 작품은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과 상봉하시였다.
주체89(2000). 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주시였다.
주체89(2000). 8.

## 6. 15북남공동선언

주체89(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 북남공동선언은 민족자주로선을 구현한 민족자주선언, 자주통일헌장이며 민족단합선언, 통일지향선언이다.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게 되였다.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주체90(2001)년 8월 평양의 통일거리 남쪽입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웅장하게 건립되였다.

기념탑의 총부지면적은 10만여㎡, 탑의 높이는 30m, 너비는 61.5m이다. 탑은 북과 남을 상징하는 두 녀인이 조국통일3대헌장마크를 힘있게 받들어올리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탑의 량쪽기단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이루는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편들과 통일조선 만세편의 4개의 부주제군상들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북, 남, 해외 각계층 동포들이 보내온 기념돌들을 전시한 방이 있다. 교양마당에는 조국통일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새긴 명제비가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와 통일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탑으로서 여기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뜻깊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 6. 15북남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녀성통일연단
-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회의 대표들의 행진
-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대표단 행진
-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2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 6.15북남공동선언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북, 남, 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북남철도련결 착공식

북남철도련결행사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가 주체92(2003)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주체91(2002)년 서울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회 주석단

■사 진 :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
■편 집 :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
■제 작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밤늦도록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단독회담을 하시였다. 주체90(200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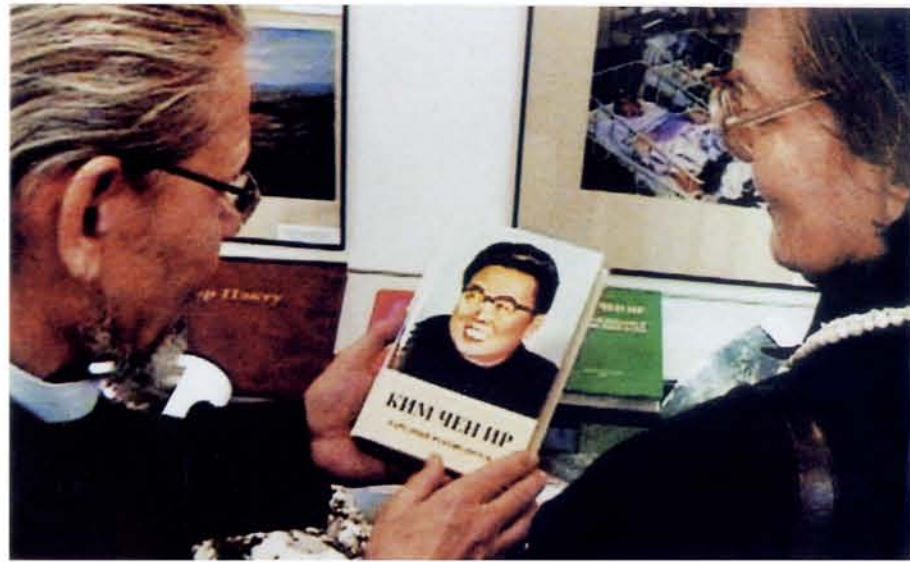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과 상봉하시였다. 주체89(2000).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를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9(2000). 1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이 의례방문하였다. 주체90(2001).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각하를 만나시였다. 주체91(200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와 일본총리 고이즈미 쥰이찌로가 조일평양선언에 각각 서명하시였다. 주체91(2002). 9.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명예칭호증서와 훈장, 꽃바구니와 축기, 선물전달식 진행
·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장과 참가자들
·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의 련환무대
·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국제연단

주체92(2003)년 2월의 뜻깊은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모스크바와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유럽지역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에 오늘의 조선과 자주성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주체91(2002)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원동지역방문 1돐을 기념하여 로씨야련방 수행기자들의 사진전시회 《원동땅에 남기신 위대한 자욱》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충성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주체92(2003)년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선군의 기치따라 세기를 이어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끓어번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주석단



## 절대적인 신뢰

주체92(2003)년 9월 3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기쁨과 감격에 넘쳐있는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열병대오에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 성대한 경축행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5돐경축 열병식시작을 보고드리였다.

주체92(2003)년 9월 9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승을 떨쳐온 공화국의 위용과 일심단결, 사회주의가 운명공동체를 이룬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장엄한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이날밤 수천발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가운데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이 진행되였다.

10일 평양체육관에서는 평양시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선군조선》이 진행되였다.

이밖에도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경축음악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이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종대들, 조국해방전쟁에서 군공을 세운 각 군종, 병종, 인민군부대 종대들, 혁명학원종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드넓은 광장에 《**김일성**》이라는 대형글발이 새겨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모시고 공화국기와 붉은기를 든 시위대오가 나갔다.

《**김정일**》이라는 대형글발이 새겨지는 속에 시위대렬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가장물과 함께 전진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의 분출인양 《경축 55》, 《선군정치》, 《결사옹위》, 《일심단결》, 《조국통일》 등의 대형글발이 광장에 새겨지는 속에 시위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라 주체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불의 대하를 이룬 광장에 공화국기와 국장, 당마크들이 련이어 홰불로 새겨지는 가운데 행진대오는 《**김일성**》, 《**김정일**》, 《선군정치》, 《일심단결》 등의 대형홰불글발을 새기며 전진하였다.

# 선군, 승리의 기치

낸곳: 조선화보사
인쇄: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발행: 주체92(2003)년 11월 30일

ㄱ-218171